

간지의 품

Part 1

원자의 물(원수민)의
2016 대수능 '생활과 양리' 안에서
서너군, 보공, 보림, 보수, 보수(보수민)의

생활과 윤리 특성 및 선택 가이드

● **과목 특성**

생활과 윤리는 선택자 수 1위(19~20만 명)를 달리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다.

순위	선택 과목	선택자 수
1위	생활과 윤리	약 19만 명
2위	사회 문화	약 18만 명
3위	한국 차사	약 10만 명
4위	윤리와 사상	약 7만 명
5위	세계사	약 5만 명
6위	동아시아사	약 3만 명
7위	법과 정치	약 2만 명
8위	세계사	약 2만 명
9위	경제	약 1만 명

● **선택 가이드**

1) **장점**

- ① 선택자 수가 가장 많아 응시 수준이 높고, 타 과목보다 하위권 비중이 높다.
- ② 2등급 목표에 최적의 과목이다. 생활과 윤리 역대 2등급 컷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논술, 학생부 전형 등 수시의 최저 등급권만 과목 중 하나다.
- (2016학년도 수능 기준, 생활과 윤리 2등급 : 전국 27,154명, 경제 2등급 : 전국 8495명)
- ③ 개념의 난도가 낮고, 절대적 분량이 적어 학습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이다. 필수 한국사 공부와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단순 암기 과목들과는 달리 스토리와 논리가 미어지고, 정답이 명확한 과목이다.
- ④ 수시 면접, 논술 등 배경지식 대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들과 시사적인 쟁점들과 다양한 때문에 실제로 써먹기에도 좋다.

(3)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 목표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반법 사상도덕스 아퀴나스, 스토아 ② 영미권과 공리주의의 구분 ③ 덕 윤리(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④ 책임 윤리(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윤리(아퀴나스)) 이론 규범 윤리적 내용 강화 → 현대 사정 상황, 응용 윤리(배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의 숙달이 필요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무론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트 윤리와 자반법 윤리를 중심으로 의무론적 접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의무론적 접근을 윤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리주의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리주의적 접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③ 덕 윤리(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 윤리(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접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덕 윤리와 배려 윤리를 구성적으로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④ 책임 윤리(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윤리(아퀴나스))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윤리를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덕 윤리와 배려 윤리를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p>2차의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심화</p> <p>(1) 삶과 죽음의 윤리</p> <p>이전에는 출생(살)과 죽음(사)으로 서로 소단원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개성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범주의 주제로 통합되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th> <th>학습 목표</th> </tr> </thead> <tbody> <tr> <td>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리스토텔레스 죽음관(연계 상황) ② 생식 보충술 ③ 자살 ④ 안락사 ⑤ 낙태 내용 보강 →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관 관련 윤리, 오히려 생식 보충술, 자살, 안락사, 낙태 등 응용 윤리 부문의 보강된 것이 주목할 것이다. 특히는 그날 읽고 쓰는 제1호 독해로 출제된 것은, 개념이나 쟁점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될 수도 있다. 항상해서 읽고 공론히 읽어보고 윤리적 문제 상황과 쟁점에서의 논리를 파악하자. * 주의: 동양(유교)의 죽음관은 교육과정 범위내 포함된다. 모든 윤리도 동일 윤리 내용의 식별, 것은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죽음관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 가능하다.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죽음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② 낙태와 생식 보충술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생식 보충술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살, 안락사, 낙태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안락사와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td> </tr> </tbody> </table>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 목표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리스토텔레스 죽음관(연계 상황) ② 생식 보충술 ③ 자살 ④ 안락사 ⑤ 낙태 내용 보강 →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관 관련 윤리, 오히려 생식 보충술, 자살, 안락사, 낙태 등 응용 윤리 부문의 보강된 것이 주목할 것이다. 특히는 그날 읽고 쓰는 제1호 독해로 출제된 것은, 개념이나 쟁점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될 수도 있다. 항상해서 읽고 공론히 읽어보고 윤리적 문제 상황과 쟁점에서의 논리를 파악하자. * 주의: 동양(유교)의 죽음관은 교육과정 범위내 포함된다. 모든 윤리도 동일 윤리 내용의 식별, 것은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죽음관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죽음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② 낙태와 생식 보충술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생식 보충술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살, 안락사, 낙태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안락사와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 목표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리스토텔레스 죽음관(연계 상황) ② 생식 보충술 ③ 자살 ④ 안락사 ⑤ 낙태 내용 보강 →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관 관련 윤리, 오히려 생식 보충술, 자살, 안락사, 낙태 등 응용 윤리 부문의 보강된 것이 주목할 것이다. 특히는 그날 읽고 쓰는 제1호 독해로 출제된 것은, 개념이나 쟁점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될 수도 있다. 항상해서 읽고 공론히 읽어보고 윤리적 문제 상황과 쟁점에서의 논리를 파악하자. * 주의: 동양(유교)의 죽음관은 교육과정 범위내 포함된다. 모든 윤리도 동일 윤리 내용의 식별, 것은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죽음관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죽음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② 낙태와 생식 보충술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생식 보충술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살, 안락사, 낙태의 윤리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안락사와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① 논리적으로 틀린 선지

- 9명 10명 문제 → 선지 B
제고 간수 능력은 동등한 아이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다.

② 범주(집합, 판단) 내용(가) 잘못된 선지

벤 다이어그램, 순서도와 같은 문제는 선지 자체는 옳은 선지이지만 집합, 판단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이 발생하므로 평소 A, B, C, D 집합에 대한 집, 분, 병의 해당 여부를 표시해 놓고 풀어야 한다. 예컨대, A는 B의 집은 동의, 둘은 반대 이런 식으로 써놓고 풀다. 절대 실수하지 말자.

• 2016학년도 9명 10명 문제의 선지 B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1단계 : 명제로 나온다.

①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가?
②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가?
③, ④ 둘 다 옳으므로 선지의 진리 값 자체는 참, 옳은 선지이다.

→ 2단계 : 집, 분, 병 판정을 한다.

~ B :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이 선지가 B로 들어가려면 오히려 B가 A가 아닌 C에 들어가야 한다. B와 C가 같은 명제이면 오히려 B가 A가 아닌 C에 들어가야 한다.

예시: ① = O, ② = O
예시: ③ = O, ④ = O
예시: ⑤ = O, ⑥ = O
예시: ⑦ = O, ⑧ = O
예시: ⑨ = O, ⑩ = O

→ 따라서 이 선지는 참인 명제이지만 벤 다이어그램 내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서 오답으로 구성했다.

● **제1호 문항의 제1호문항이나 선지에서 내용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학습할 것**

04

[서문] 현자의 돌 소개 및 분석서 활용법

06

생활과 윤리 특성 및 선택 가이드

07

생활과 윤리, 학습법

시기별 생활과 윤리 학습 로드맵

사고력 중심의 사회탐구 학습법

올바른 학습법 : 구조화 정리, 논리와 스토리텔링 모두 잡기

이항대립, 개념의 범주 판단(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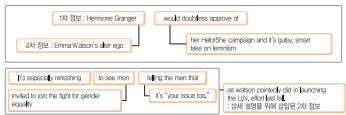
동간지의 품 Part 1

1) 영어에서의 문장 내 정보의 층위 분석

Emma Watson's alter ego Hermione Granger would doubtless approve of her HeForShe campaign and its gutsy, smart take. It's especially refreshing to see men invited to join the fight for gender equality, as Watson pointedly did in launching the U.N. telling the men that it's "your issue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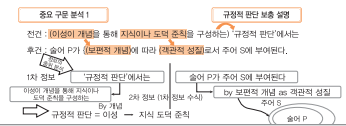
같은 복잡한 문장인 경우, 그 구조가 계층적으로 나뉜다. 위와 같이 명사구의 핵, 동사구의 핵이 1차 정보로 제시되고, 그 핵을 하는 2, 3차 정보로 제시된다.

Emma Watson's alter ego Hermione Granger would doubtless approve of her HeForShe campaign and its gutsy, smart take on feminism. It's especially refreshing to see men invited to join the fight for gender equality, as Watson pointedly did in launching the U.N. effort last fall, telling the men that it's "your issue too."



2) 한국어에서의 문장 내 정보의 층위 분석 : 2015학년도 수능 국어(공통) 가트의 쥐미 판단 이문

이상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 술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술이 부어진다.



제시문 분석

갑과 을은 모두 경기 중 발생하는 규칙 위반의 종류를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 즉, 의도성 여부를 나눌 수 있다고 비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같은 의도적인 반칙 중에서도 전술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을은 모든 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답 정리

정답/의문	갑	을
정답 A: 비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
정답 B: 의도적인 반칙 중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

선지 해설

같은 ○, 을은 ×인 질문을 골라야 한다. (단, 교육과정에서 삭제됨)

○ × × ⇒ 정답 A

○ ○ ○: 을의 마지막 말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반칙은 전술적 반칙과 심판을 속이는 반칙으로 나뉘며, 심판을 속이는

제시문의 특징

각 제시문을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어의 화자론이나 비문학 문항처럼 무는 문항이다. ⇒ 각 사항가가 누구인지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항이다.

제시문의 종류

갑: 예술의 역사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양 사상가의 입장이자. ⇒ 유교, 순자의 예악론
을: 예술의 이질 사상, 교류와 같은 사회적 효용(사회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플라토이 두 제시문 모두 예술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공통 점
그러나 같은 예술의 즐거움을 인정하는 반면, 을은 예술의 즐거움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정답 정리

정답/의문	갑	을
정답 A: 예술의 사회적 기능(사회성을 강조하는가?)	○	○
정답 B: 예술을 위한 즐거움(심미적 가치, 미적, 비평, 재평)을 인정하는가?	○	×

◎ 범주(집합, 판단 내용)가 잘못된 선지

반 다이어그램, 순서도와 같은 문제는 선지 자체는 옳은 선지이지만 집합, 판단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알고도 틀 일이 발생하므로 평소예 각선지 열에 A, B, C, D 집합에 대한 갑, 을, 병의 해당 여부를 표시해 놓고 풀어야 한다. 예컨대, A는 갑과 을 모두 B는 갑은 동의, 을은 반대 이런 식으로 써놓고 풀다. 절대 실수하지 말자.

◎ 2016학년도 9월 10번의 ㄴ, 선지 B

인간은 아직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제이다.

→ 1단계: 명제로 나눈다.

① 인간은 아직 관심을 갖고 있는가?

②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가?

③ 을은 다름으로써 선지의 전 지체는 잘, 옳은 선지이다.

→ 2단계: 갑, 을, 병 한문을 한다.

ㄴ, B: 인간은 아직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제이다.

이 선지가 B로 들어가려면 오직 세소묘만이 이 선지에 대해 긍정, 재인과 세소묘는 부정을 해야 한다.

예컨: ㉠ = ○, ㉡ = ○

세소묘: ㉢ = ○, ㉣ = ○

세소묘: ㉤ = ○, ㉥ = ○

갑, 을, 병 모두 긍정하는 선지이므로 이 선지는 B가 아닌 C에 들어가야 한다.

→ 따라서 이 선지는 앞선 명제이지만 반 다이어그램 내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서 도입으로 구성했다.

◎ 제시문 독해 심화 연습: 문장 구조 및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분석하라.

★ 컬러 문장의 제시문이나 선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학습할 것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문제(정답률 23%), 2015학년도 수능 14번(정답률 36%) 이 두 문항은 최근 평가원 및 수능 기출문항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항들의 핵심은 제시문 내의 주요 문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것이었다.

문장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문장을 구문론적으로 접근하고,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문장이 복잡하게 쓰인 경우, 위에서 말한 조건문으로 나눠서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문장의 정보를 계층별로 분류하여 이 문장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독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

12

개정 교육과정 살펴보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정리와 학습목표

23

생활과 윤리, 고득점 방법론

EBS 활용법

개념어는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어(용어)의 어원을 알아보자.

개념화, 명제화를 통한 생활과 윤리 학습법

28

생활과 윤리, 문제풀이 방법론

선지 분석법

제시문 독해 심화 연습: 문장 구조 및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분석하라.

유형별 문제풀이 I ~ IX



[서문]

현자의 돌(임수민) 소개 및 분석서 활용법

본 서문에서는 현자의 돌 소개, 생활과 윤리 과목에 대한 소개, 구체적인 학습법, 실전 문제풀이 방법론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효율적인 내용 전달 및 구성을 위해 앞으로 경어를 생략하오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자의 돌(임수민) 저자 소개

현자의 돌(임수민)

-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환경 윤리) 문항, 해설 논란 종결
-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Topline 출판사) 저자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 생·윤 5문항, 윤·사 7문항 적중
- 2016학년도 수능 : 오답률 Top 문항, 킬러 문항, 신유형 등 10문항 적중
- 모의고사 구매자 중 수능 생활과 윤리 만점자들이 많으며, 수많은 감사 후기를 받음.
- 같은 수험생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과 기존의 강의와 교재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음.
- 여러가지 꿀 팁과 깊이 있는 개념 칼럼을 무료로 나누고 있음.
- blog.naver.com/cucuzz/ (현자의 돌 블로그)

● 현자의 돌(임수민) 분석서 활용법

본 분석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2016학년도 수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책이다.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은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해설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기출 문항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항의 제시문과 선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밖의 개념을 끌어와 선지를 끼워 맞추는 등 문항을 사후적으로 해설하고 푸는 데 집중한다.

생활과 윤리가 수능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수능에서는 제시문과 선지가 낯설고 까다롭게 출제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문항이 변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하는 것이다.

본 분석서는 ‘논리적인 문제풀이 방법론’과 ‘철저하게 제시문과 선지에 근거한 해설’을 통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016학년도 수능의 해설을 제공한다.

Part1에서는 학습자들을 위한 학습법, 개정 교육과정 안내, 문제풀이 방법론을 상세하게 다룬다. 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를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과 수능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2016학년도 수능의 ‘유형별 문제풀이 I~IX’를 통해서 설명한다. 생활과 윤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파트이다.

Part2에서는 Part1에서 다루지 않은 기출문제들의 해설과 관련 개념 정리 칼럼을 개정 교육과정의 관점과 기출문제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상세하게 서술한다. 특히 칸트를 중심으로 여러 사상가를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개정 생활과 윤리의 핵심을 짚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Part2는 ‘수능’을 다각도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므로 생활과 윤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을 공부하기 전 혹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Part2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정확한 생활과 윤리의 개념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Part2를 중심으로 6 & 9월 평가원/수능 전 총 4~5회 정도 반복하여 읽으며 생활과 윤리의 심화 개념들을 학습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에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면서 혼동되는 어려운 개념이 있을 때마다 사전처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본 분석서가 개정 생활과 윤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16년 3월 11일 현자의 돌 이수민 씀

생활과 윤리 특성 및 선택 가이드

● 과목 특성

생활과 윤리는 선택자 수 1위(19~20만 명)를 달리고 있는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이다.

순위	선택 과목	선택자 수
1위	생활과 윤리	약 19만 명
2위	사회 문화	약 18만 명
3위	한국 지리	약 10만 명
4위	윤리와 사상	약 5만 명
5위	세계지리	약 4.3만 명
6위	동아시아사	약 3.5만 명
7위	법과 정치	약 3.2만 명
8위	세계사	약 2.5만 명
9위	경제	약 0.9만 명

● 선택 가이드

1) 장점

- ① 선택자 수가 가장 많아 응시자 수준이 고르고, 타 과목보다 하위권 비중이 높다.
- ② 2등급 목표에 최적의 과목이다. 생활과 윤리 역대 2등급 컷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논술, 학생부 전형 등 수시의 최저 등급을 맞추기 가장 안전한 과목 중 하나다. (2016학년도 수능 기준, 생활과 윤리 2등급 : 전국 27,154등, 경제 2등급 : 전국 849등)
- ③ 개념의 난도가 낮고, 절대적 분량이 적어 학습 부담이 가장 적은 사탐 과목이다. 필수 한국사 공부와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과목이다.
- ④ 단순 암기 과목들과는 달리 스토리와 논리가 이어지고, 정답이 명확한 과목이다.
- ⑤ 수시 면접, 논술 등 배경지식 대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들과 시사적인 쟁점들과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써먹기에도 좋다.

2) 단점

- ① 1등급, 만점을 맞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활과 윤리 공부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1등급과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 ② 교육과정의 변화가 많이 개정되어 기출문제가 없는 신개념들이 있다. 하지만 교과서, EBS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도다.
- ③ 20문제 모두 국어 독해로 출제되기 때문에 국어 독해력이나 센스가 부족하면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생활과 윤리, 학습법

● 시기별 생활과 윤리 학습 로드맵

생활과 윤리 학습은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뉘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1) 6월 모의평가 전

개념 학습을 하는 단계이다. 생활과 윤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먼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좋다. 그 후 수능특강과 교과서를 동시에 학습하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요약하는 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개념 공부를 한 후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좋다. 개정 교육과정의 시각으로 예전 기출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양 윤리는 축소되었기에 관련 기출문제 중 풀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 반대로 환경 윤리 단원은 확장되었기에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교과서와 EBS에 추가된 내용을 적용해서 기출을 새롭게 해석해보고, 확장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때, 기출문제는 2016학년도 수능 문항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작년 수능 문항들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은근히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과 작년 기출 문항의 시각으로 기존의 기출 문항을 바라본다면 올해 출제될 문항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공부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개념, 별표 문항, 틀린 문항을 표시하는 것도 좋다.

2) 9월 모의평가 전

우선, 교과서와 수능특강을 다시 한번 통독한 후 6월 모의평가에서 교과서와 수능특강 내용이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분석하라.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예측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참고) www.EBSi.co.kr의 해설 강의에서 각 문항 해설을 시작할 때 수능특강 연계 문항을 알려준다.)

분석이 끝난 후 9월 모의평가 전까지의 공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 6월 모의평가의 분석을 토대로 수능완성을 학습한다. 수능특강과 교과서 복습도 꾸준히 해야 한다. 수능의 핵심 킬러 문제는 교과서의 서술에 근거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두 권 모두 공부할 때, 개념을 바르게 쌓을 수 있다.

3) 9월 모의평가 이후 ~ 수능 전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한 후 수능 전까지는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20회 이상 풀며 수능까지 꾸준히 복습해야 한다. 이는 사설 교재나 파이널 인강을 듣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수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 해의 6월,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와 수능특강, 수능완성 복습도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야 한다. 10월 초부터는 자신이 부족한 단원과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수능 전에는 아는 것을 늘려고 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은 단순히 개념을 읽고 논리나 스토리라인을 따라간다고 100% 습득되지 않는다. 새로운 문항들을 통해서 개념을 적용하여 맞아도 보고, 틀려도 보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추천 문제는 역대 고3 + 고2(개정 교육과정) 교육청 기출문제이다. 고2 교육청은 쉽지만, 개정 교육과정 문항이 적으므로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이전 교육과정의 고3 교육청 문항은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자신이 약한 단원이나 중요한 주제들(사회 정의, 사형제, 환경 윤리 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꼭 풀어 보자.

((참고) 파이널 인강을 수강하는 것도 좋다. 파이널은 두 종류로 나뉜다. 중요 개념과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는 강의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를

3회 정도씩 풀어보는 강의를 있다. 둘 중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골라 하나 정도 수강한다.)

마무리 공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아는 개념들이 올바른 개념인지를 확인하고, 오개념을 수정하며, 몰랐던 개념들을 기존의 개념의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특히, 수능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비롯한 각종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좋은 등급을 얻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수능 3일 전, 자신이 혼동되는 개념이나 선지를 A4 1p 정도에 최종 정리를 하자. 그리고 뒷면에는 생활과 윤리의 대단원들,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을 간단하게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다. 수능 날까지 생활과 윤리 단원과 빈출 주제들의 마인드맵을 보고 관련 개념과 논리들을 빠르게 연상하며 생활과 윤리 전체 내용을 반추하자.

● 사고력 중심의 사회탐구 학습법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성취도 검사와 학습 능력과 소질을 측정하는 적성 검사(지능 검사)가 있다. 학교 내신시험은 성취도 검사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자 그대로 대학에서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수능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려 한다.

문제 해결력이란 ‘사고력’이다. 제시문과 선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실적 이해력,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추론적 이해력, 주장의 전제를 분석하고,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판적 이해력 등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수능을 잘 보려면 사회탐구의 ‘탐구(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적인 측면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교과서 안의 개념을 새로운 유형, 새로운 선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수능 출제진들은 교과서를 출제와 검토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수능 문항은 교과서에 근거한 문항만이 출제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과서를 공부하기보다 인강과 개념서를 활용하여 공부한다. 교과서는 학교 수업을 위한 교재이지 독학용 교재가 아니어서,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체계’가 잡혀있어야 한다. 먼저 인강 등을 통해 개념을 배우고, 전체적인 틀을 형성한 후 교과서를 공부하면 좋다.

수능 공부의 기준은 교과서다. 기존에 다른 교재 등에서 배웠던 내용과 교과서의 서술이 다르다면, 정확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자(개념서, 수특/수완 읽어보기, EBSI.co.kr에 질문하기(강추), 선생님께 질문하기). 또한 교과서를 읽으면서 각 단원과 소단원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서술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교과서의 목차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교과서를 읽는다.

생활과 윤리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 후에는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의 학습목표들에 주목해보자. 수능은 교과서 학습목표들을 반영하여 문제를 출제한다. 교과서의 설명을 통해서 각 학습목표들을 성취한다면 수능에서 출제될 20문항들의 주요 개념들을 충분히 대비한 것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공부하여도 실제 수능에서는 공부하지 못한 내용이나 친숙하지 않은 주제, 제시문, 선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 문항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개념서의 읽기 자료를 읽으며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깊게 따져보는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실제 문제들을 접할 때 ‘모르는 내용’이라고 가정하고, 아는 내용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다. 제시문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제시문의 논리에 따르면 ‘①~⑤ 선지는 각각 어떻게 판정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 풀이를 생각해보라.

● 올바른 학습법 : 구조화 정리, 논리와 스토리텔링 모두 잡기

생활과 윤리 강의나 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키워드 중심의 서술, 판서 강의 : 완자, 셀파
- 논리적 연결성, 스토리텔링 중심의 강의 : 누드교과서, 숨마쿰라우데, 교과서

키워드와 판서 정리 중심으로 생활과 윤리를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스토리를 따라 논리적 연결성을 이어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답은 간단하다. 둘 다 필요하다. 키워드와 판서 위주의 교재, 강의의 장점은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내의 개념들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아준다는 것이다. 논리적 연결성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주는 교재, 강의의 장점은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기억이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의 단점도 확실하다. 키워드와 판서 위주의 학습은 결국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위주로 학습하는 귀납형 학습이다. 이미 출제된 제시문과 선지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키워드와 판서 정리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뒷북식 학습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변형되어 출제되거나 신개념, 신유형으로 출제되는 문항들을 쉽게 틀리곤 한다. ‘기존에 기출’되었던 내용을 ‘틀’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식의 공부하는 암기식 학습으로 흐르게 되어 미리 정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6번 칸트가 ‘사형제를 수단으로 보았다.’, 7번 형제 간의 ‘권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판서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이 두 문항을 틀렸다. 그 학생들은 칸트는 수단×, 오로지 목적○, 권면은 친구 관계에서 적용!이라고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탐구’이다. 여기서 탐구란 주어진 문제의 발문과 제시문, 선지를 잘 읽고 그것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과 오답을 골라내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결국 키워드 위주의 판서 강의는 내용 학습에는 용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시험장에서 ‘탐구’ 능력을 배양해 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 외에도, 키워드 위주의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종종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칸트가 수단이 안 된다’, ‘권면은 오로지 친구 관계에서만이다.’와 같이 선생님이 오개념을 심어주는 경우, 그것만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암기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스토리텔링 강의의 문제점도 확실하다. 마치 대학 교양 수업이나 인문학 강연을 듣는 것과 같이 필기도 하지 않고 쪽쪽 썰을 푸는 강의가 그 예이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개념들의 논리적 관계나 설명을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남는 것이 적다. 이해는 이해에서 끝나고, 전체적인 개념의 연결 관계와 순서가 체계적으로 남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공부할 경우, 실제 시험장에서 분명히 선생님은 가르쳤지만 기억을 못하는 ‘모르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학기 초에 그런 개념 강의를 30~40여 강을 수강하고, 여름쯤 되면 개념들을 대부분 까먹고 새로 속성 개념 강의를 찾아서 듣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선생님의 강의 내용에서 오류가 있어 사실관계나 개념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 수험생의 자세는 양 극단을 피하고, 두 가지의 방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인간이나 학교 선생님의 강의 중 오류는 있기 마련이므로 강의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과 윤리의 전체적인 틀을 스스로 잡아본다. 키워드 중심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도 좋지만, 그 경우 마인드맵과 같이 시각적으로 개념들을 정리해주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노트는 키워드의 단순 나열이 될 가능성이 큰데, 시각적으로 한눈에 개념들의 관계와 분류를 파악할 수 있는 맵을 그리면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저자가 추천하는 마인드맵의 방식은 다음 칼럼에서 소개할 ‘이항대립’이라는 방식이다. 논리적으로 개념들을 분류하고 나누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키워드 중심의 개념 노트는 ‘수능특강’의 서술 체계를 따라서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각 소단원별로 노트를 만들면서 빈 곳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 교과서와 기출문제, EBS 문제 등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을 추가로 적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윤리학 사상과 윤리적 쟁점을 공부할 때에는 각 사상가의 개념과 입장을 시대적 배경이나 다른 사상가들 간의 관계성을 따지며 학습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의무론의 칸트와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을 서로 비교하고(전제, 관점 등 대조적인 부분 중심으로), 실제 예시에 적용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스스로 중얼거리면서 강의를 해봐도 좋다. 윤리적 쟁점을 공부할 때도 같다. 낙태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낙태와 관련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예컨대, 태아를 인간과 같은 권리를 지닌 존재로 보는 입장은 낙태를 반대할 것이지만 반면 태아는 인간이 아니며,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는 처지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태아보다 산모를 우선시하여 낙태를 찬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입장들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와 스토리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토리’로 기억하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항대립, 개념의 범주 판단 (분할)

생활과 윤리는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마주치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하는 과목이다. ‘윤리적 문제 상황’이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이므로, 윤리적 입장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은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다. 이처럼 생활과 윤리는 하나의 쟁점을 기준으로 대립적인 입장으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다. 상반되는 입장들과 개념들이 대립하는 생활과 윤리는 ‘이항대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다.

(1) 이항대립의 정의와 필요성

이항대립은 ‘개념의 분할’이다. (A vs ~ A)

그 예로는 현상/실재, 우연/본질, 상대적/절대적, 개별적/보편적, 추상적/구체적, 객관적/주관적, 작용/실체, 이론/실천 등의 쌍들이 있다.

(중략)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세 개 이상 있을 때에도 그 개념들을 잘 분류하면 이항대립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2) 이항대립의 목적

‘생물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로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름(또는 개념)이 그냥 마구잡이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마치 잘 정리된 컴퓨터 폴더처럼 질서 있게 분류되어 있다. (중략) 이렇게 개념들을 잘 분류하는 것을 ‘개념적 사고’라고 한다. 수능 국어는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개념을 다루는 방법, 즉 개념적 사고를 묻고자 하는 시험이다.”¹⁾

※ 생활과 윤리의 개념을 이항대립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Part2의 개념, 심화 칼럼에서 계속 예시로 보여줄 것이다.

수능자의 꿈

1) 이원준, 『이원준의 수능국어 1+3원칙 입문』, 메가스터디 이원준 국어 연구소, 2016, P.14

개정 교육과정 살펴보기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 정리와 학습목표

1단원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

(1) 현대 생활과 응용 윤리의 필요성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1960년 이후 등장한 학문인 [응용 윤리학]의 학문적 체계와 논리를 더 깊고 정확하게 반영 → 이전에는 응용 윤리학적 주제들이 여러 단원에 섞여 있었으나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같은 범주의 주제들은 같은 단원에 묶여 있다.</p> <p>[삭제] 전통 윤리 삭제(윤리의 동양 전통적 가치, 유불도 인간관, 수양론) → 동양 사상 축소로 인해 윤리와 사상 미선택자의 불리함이 적어졌다.</p> <p>[변경] 개인윤리 & 사회윤리(니부어)가 사회 정의의 파트로 이동 → 니부어 단독 문항보다는 사회 정의 단원의 사상가들과 연계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니부어 사상의 독립적인 학습만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사상가들과의 연계를 생각하며 공부하자.</p>	<p>①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윤리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양 윤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서 윤리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응용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 윤리학의 의미와 이론 윤리학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응용 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p>③ 응용 윤리의 제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응용 윤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핵심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2)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윤리 문제의 탐구 절차 강화 (윤리적 탐구 과정, 윤리적 탐구에 도덕적 추론을 적용하기) → 윤리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이전 교과서에도 있었지만 개정 교과과정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수능특강에서도 각 과정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신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p>	<p>① 윤리 문제와 윤리적 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의 의미와 탐구를 위해 필요한 사고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윤리적 탐구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윤리적 탐구의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탐구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윤리적 탐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을 적용할 수 있다. <p>③ 토론 및 성찰의 중요성과 윤리적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윤리적 태도로 토론할 수 있다. •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3)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자연법 사상(토마스 아퀴나스, 스토아) ②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구분 ③ 덕 윤리(고전, 현대), 배려 윤리(나딩스, 길리건) ④ 책임 윤리(요나스), 담론 윤리(하버마스) 이론 규범 윤리학 내용 강화 → 현대 서양 철학, 응용 윤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의 습득이 필요하다.</p>	<p>① 의무론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트 윤리와 자연법 윤리를 중심으로 의무론적 접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의무론적 접근을 윤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p>② 공리주의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리주의적 접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p>③ 덕 윤리적 접근과 배려 윤리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 윤리적 접근과 배려 윤리적 접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덕 윤리와 배려 윤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④ 책임 윤리적 접근과 담론 윤리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윤리를 적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담론 윤리의 특징을 알고 윤리 문제에 담론 윤리를 적용할 수 있다.

2단원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1) 삶과 죽음의 윤리

이전에는 출생(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소단원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범주의 주제로 통합되었다.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야스퍼스 죽음관(한계 상황) ② 생식 보조술 ③ 자살 ④ 안락사 & 낙태 내용 보강 → 야스퍼스의 죽음관은 쉽다. 오히려 생식 보조술, 자살, 안락사, 낙태 등 응용 윤리 부분이 보강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원래는 그냥 읽고 푸는 제시문 독해로 출제되곤 했는데, 개념이나 쟁점을 알아야 문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될 수도 있다. 방심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고 윤리적 문제 상황과 쟁점에서의 논리를 파악하자. ※ 주의 : 동양(유불도)의 죽음관은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 모든 유불도 동양 윤리 내용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죽음관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 가능하다.</p> <p>[삭제] 관혼상제 중 혼례를 제외한 관례(계례), 상장례, 제례 삭제 →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어 공부할 필요 없다. 단, 혼례는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출제 가능성 있다.</p>	<p>① 출생과 죽음의 윤리적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의 윤리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죽음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p>② 낙태와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생식 보조술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p>③ 자살,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의 윤리적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안락사와 뇌사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생명 과학과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생명 윤리 강화, 생명 과학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p> <p>② 인체 실험 윤리 강화, 동물 실험 윤리 새롭게 추가</p> <p>③ 유전자 조작 농산물 새롭게 추가</p> <p>→ 이전에는 '출생과 윤리', '신체와 윤리'등의 소단원들 일부분으로 파편화 되어있던 주제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생각 보다 현실적인 쟁점들이 많으니,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왜 이 쟁점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따져보며 공부하자.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리와 쟁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면 된다.</p>	<p>① 생명 과학과 생명 윤리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과학의 성과와 생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생명 윤리와 생명 과학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p>② 장기 이식의 윤리적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이식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장기 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p>③ 인체 실험의 윤리적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 실험의 의미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인체 실험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p>④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복제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성과 사랑의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성차별 문제 강화, 성적 소수자 문제 강화, 성의 상품화, 성의 자기 결정권 내용 강화</p> <p>→ 성차별 문제는 수능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p>	<p>① 성과 사랑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사랑의 가치와 성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 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성과 사랑에 대한 바람직한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다. <p>② 성 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차별의 문제점과 양성 평등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p>③ 성의 자기 결정권과 상품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 성 상품화와 관련된 찬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4) 가족 관계의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가족 : 자녀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고령화 사회 노인 문제에 대응하는 가족 윤리가 추가되었다. (현실적 방안)</p> <p>[삭제] 전통 사회에서의 노인 공경(유교)이 축소되었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통 윤리(유불도)의 가치를 강조하기보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p>	<p>① 결혼의 윤리적 의미와 부부간의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간의 윤리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 알맞게 재해석할 수 있다. <p>② 가족의 가치와 부모 자녀 간의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부모 자녀 간의 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p>③ 형제/자매의 윤리와 친족 간의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제/자매 간의 지켜야할 윤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친족 간의 필요한 윤리를 설명할 수 있다. <p>④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 윤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가족 윤리를 확립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5) 친구, 이웃 관계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친구와 이웃 간의 윤리적 문제(갈등) 예방과 해결 방안이 현대적으로 개편되었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친구 관계의 문제점을 전통 사회의 윤리적 태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말한다.</p> <p>[삭제]</p> <p>① 친구 관계의 전통사회 윤리 내용이 약화되었다.</p> <p>②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 부분이 삭제되었다.</p> <p>③ 전통 윤리의 청소년기 통과 의례인 관례와 계례가 삭제되었고, 전통적 친구 관계가 축소되었다. → 전통 윤리 부분이 많이 삭제되었다.</p> <p>④ 자아정체성 문제는 오히려 '사이버 윤리'로 이동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체성 문제로 개념이 바뀌었다.</p>	<p>① 친구 관계와 윤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관계의 중요성과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p>② 이웃 생활과 윤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이웃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는다. <p>③ 친구, 이웃 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이웃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친구, 이웃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3단원 과학, 기술, 정보 윤리

(1) 과학 기술과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과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윤리의 관계가 강조되었다. 특히 과학 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논한다.</p> <p>② 책임 윤리의 요나스가 강조된다.</p> <p>→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가치 개입성에 대한 논쟁은 빈출 주제인 만큼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책임 윤리학자인 요나스가 비판하는 문항도 출제 가능하다. 과학 기술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잘 파악하자.</p>	<p>① 과학 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과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 과학 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p>②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p>③ 과학 기술의 윤리적 과제와 책임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기술의 윤리적 과제를 이해할 수 있다. •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책임 윤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환경 윤리 사상가들이 대폭 추가, 심화되었다. 교과서 안에서 다양한 사상가를 언급하기도 한다.</p> <p>②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비중도 올라갔다.</p> <p>③ 심층 생태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p> <p>[삭제]</p> <p>① 동/서양의 전통적 자연관(유불도 자연관)이 축소되었다.</p> <p>② 서구적 자연관의 문제점이 축소되었다.</p> <p>③ 감정 중심주의(싱어)가 동물 중심주의</p> <p>→ 벤담 & 밀 & 싱어 + 레건으로 변화하였다(범주의 확장).</p> <p>→ 환경 윤리는 사상가도 늘고 개념도 많이 추가되어 어려워질 것 같다. 환경 윤리의 경우, 온라인 칼럼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룰 생각이다.</p>	<p>①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도구적 자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 <p>② 동물 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중심주의 윤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동물 중심주의 윤리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p>③ 생명 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중심주의 윤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생명 중심주의 윤리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p>④ 생태 중심주의 윤리와 환경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중심주의 윤리가 환경 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생태 중심주의 윤리의 한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p>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자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양의 환경친화적 자연관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3)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려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 ②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③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p> <p>→ 기후 변화 문제가 새롭게 교육과정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현대인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도 제기된다.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책임’ 윤리학자인 요나스의 주장도 같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u>올해는 요나스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u></p>	<p>① 현대 환경 문제의 유형과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환경 문제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환경 문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기후 변화의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 탄소 배출 감소 방안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p>③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문제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설명할 수 있다. <p>④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덕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정보 사회와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잊힐 권리 →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대립되어 출제될 수 있는 개념이다.</p> <p>②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의 예방과 대응책,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따돌림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때, 교과서와 수능 특강은 공리주의 철학자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이를 설명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주어야 하나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밀은 ‘자유론’에서 해악 금지 원칙을 언론, 사상, 표현에 자유에 적용할 때, 다른 자유들에 비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정답률 80% 이상의 상식 수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p> <p>[삭제]</p> <p>① 유비쿼터스 사회와 특성 ② 사이버 공동체의 기능과 특징</p> <p>→ 유비쿼터스 사회 및 사이버 공동체는 삭제되었다. 새롭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내용이 삭제된 것 같다.</p>	<p>①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p>② 사이버 공간과 자아 정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심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p>③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p>④ 사이버 따돌림의 예방책과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p>⑤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의 윤리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4단원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1)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니부어, 사회 구조의 중요성 → 원래 1단원 '생활과 윤리의 의의' 단원에 있던 내용이다. 선한 개인이라도 악한 사회 속에서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회 윤리' 내용으로 단독 출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6학년도에서 벤담과 함께 출제된 것처럼 다른 정의 윤리학자와 연계될 수 있으니 니부어에 대한 개념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과의 비교 학습도 진행하자.</p> <p>②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 덕 윤리 : 고전적 덕 윤리 아리스토텔레스, 현대 덕 윤리 매킨타이어가 연계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p> <p>[삭제]</p> <p>유교 윤리(선비정신, 정명 사상)의 중요도가 줄어들었다. 그냥 공직자 윤리의 부패방지, 청렴의 사례의 일부로 제시되는 정도 → 니부어의 사회 윤리가 들어오면서 축소된 듯.</p>	<p>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윤리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p>②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 구조와 제도의 윤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p>③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사회 정의 강화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분류, 롤즈, 노직, 마르크스의 분배적 정의 강화, 법적 정의 강화(형벌과 사형) → 정의 파트는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p> <p>② 생활과 윤리에서 딱 세 개 꼽으라면 이론규범 윤리/정의 윤리/환경 윤리를 꼽을 수 있다. 이전에는 마르크스가 영동하게 직업윤리 단원의 '노동관'에서 소개가 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분배적 정의(교학사 181p, 천재 교육 155p)의 한 관점으로 소개되고 있다.</p> <p>[삭제]</p> <p>사회 부패 방지와 청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p>	<p>① 사회 정의의 의미와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 사회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p>③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정의의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할 수 있다. • 공정한 처벌의 조건과 이에 대한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p>④ 사형 제도의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법적 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인권 존중, 차별 & 역차별, 소수집단 우대정책, 시민 불복종</p> <p>→ 인권 존중 단원이 완전히 새롭게 들어왔다. '사회적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것을 역차별로 볼 것인가?'하는 현대 사회의 윤리적 쟁점이 들어왔다. 셸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하얀 책, 새 번역)를 읽어봐도 좋을 듯. 또한 '시민 불복종'이 들어왔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은 나쁜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대표적 사상가로는 소로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간디, 마틴 루터 킹 박사, 롤스, 니부어 등이 있다. 인권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단원은 아니다. 대신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 가치들과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념 학습을 할 때, 단순 암기를 하기보다는 개념들과 논리를 이해하고 반복해 보는 것이 좋다.</p>	<p>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인권 존중이 중요한 이유를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p>②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다. <p>③ 부패 방지와 청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의 의미와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p>④ 준법과 시민 불복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의 의무와 시민 불복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4) 직업의 의의와 직업 생활의 윤리적 책임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베버의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p> <p>② 정약용의 공직 윤리</p> <p>③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p> <p>[삭제]</p> <p>① 근면과 장인정신 삭제</p> <p>② 동서양 고대 사상가의 직업관 비중 하락</p> <p>③ 마르크스 분배 정의 파트로 이동</p> <p>→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대 사상의 내용보다는 현대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래도 동서양 고대 사상가의 직업관이 삭제된 것은 아니니 기본적인 개념 학습은 해야 한다. (심화 학습은 필요 없을 듯.)</p>	<p>① 직업의 의의와 직업 윤리의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이 지닌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업 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p>② 직업적 성공의 도덕적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 성공의 다양한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적 성공이 갖는 도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p>③ 기업가와 근로자의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와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기업가와 근로자가 상생적 관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 <p>④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의 특징과 전문직의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 공직의 특징과 공직자 윤리를 이해할 수 있다.

5단원 문화와 윤리

(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예술과 윤리의 조화를 강조한다. → 예술에 대한 칸트의 입장은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극단론을 단순 비교하는 문항보다 극단론을 칸트나 절충론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p> <p>[삭제]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절대적 도덕주의, 절대적 심미주의’라고 가르쳤던 내용을 이번 교육 과정부터는 ‘도덕주의, 심미주의’로 고쳐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이라는 양 극단의 논리를 비교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기보다 예술과 윤리(도덕)간의 관계를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조화롭게 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 극단을 강조하던 기존의 기술문제만을 타성적으로 풀고 학습하기보다 예술과 도덕의 조화를 추구하는 입들을 주의해서 공부하자. ‘기출이 진리’라고는 하나,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을 새로운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p>	<p>①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삶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예술과 윤리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p>②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기준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 외설이 지닌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p>③ 예술의 상업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대중화 및 상업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예술의 지나친 상업화가 갖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종교와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종교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게 추가 → 이전 교육과정 엘리야데 ↔ 개정 교육과정 엘리야데, 뒤르켐, 프로이트, 마르크스 (미래엔 239p, 천재교육 195p) 등 사상가가 제시되어 있다. 종교와 관련된 갈등과 해결책(올바른 윤리적 태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 사상가들이 많고 주장이 다 다르지만 결국 종교에 대한 입장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 종교를 비판하는 입장 그리고 절충론으로 종교와 과학, 윤리 등의 관계를 조화롭게 바라보는 입장. 범주를 나누고 각 철학자의 주장을 분류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p>	<p>① 종교의 본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의 의미와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 종교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종교와 관련된 갈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과학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p>③ 종교 윤리와 세속 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와 윤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종교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3) 의식주의 윤리적 문제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다. ① 패스트 패션(의) ② 육식의 종말 & 슬로우 푸드 운동(식) ③ 베블런 효과(소비 문화) 정도의 개념을 주목하면 될 듯.</p> <p>[삭제] 매체, 스포츠 윤리가 삭제되고, 의식주 윤리로 대체되었다.</p>	<p>① 의복 문화와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의복 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음식 문화와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과 음식 문화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음식 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p>③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주거 문화의 윤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주거 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p>④ 소비 문화와 윤리적 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소비 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윤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4) 다문화 사회의 윤리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 오리엔탈리즘(서구 자문화 중심주의) ※ 문명의 충돌은 여전히 교육과정 내(교학사 270p)</p> <p>[삭제] 용광로 이론 C 동화주의적 관점으로 개정되었다. (이전 교육과정 :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 → 용광로 모델은 사회문화에서는 동화주의라고 보았고, 이전 생활윤리에서는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보았다. 용광로 이론은 동화주의적 관점이 맞다.</p> <p>(참고) “용광로 이론에서는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다.” (비상교육 252p)</p>	<p>①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p>② 다문화에 대한 관용과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에 대한 관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p>③ 다문화의 문화적 정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6단원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1)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삭제]</p> <p>① 민족과 국가 생활 윤리가 대폭 삭제되었다.</p> <p>② 국방의 의무가 삭제되었다.</p> <p>③ 민본 사상과 위민 정신(민주주의 vs 민본주의 비교 문항)이 삭제되었다.</p> <p>④ 충성과 호국 정신이 삭제되었다.</p>	<p>① 지구촌 시대의 민족 정체성과 민족 통합의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시대의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열린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 통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p>②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통일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평화 비용의 의미와 평화 비용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설명할 수 있다. <p>③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에 따른 윤리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을 도우려는 태도를 지닌다. <p>④ 재외 동포의 문제와 한민족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 동포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한민족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추가 및 삭제/변경 내용	학습목표
<p>[추가]</p> <p>① 국제 정의가 추가되었다.</p> <p>→ 형사적 정의(국제 재판소), 분배적 정의, 해외 원조 파트에서 칸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 추가되었다.</p> <p>② 전쟁 윤리가 추가되었다.</p> <p>→ 마이클 월저의 ‘정의 전쟁론’이 출제될 수 있다. 갈등의 평화론도 출제가능하다.</p> <p>[삭제]</p> <p>국제 관계이론(현실주의, 이상주의, 구성주의 비교 문항)이 축소되었다(삭제는 아님).</p> <p>→ 현실주의는 전쟁에 대한 입장으로, 이상주의는 평화에 대한 입장 (특히 칸트의 영구 평화론)으로 이동했다.</p>	<p>① 세계화와 지역화의 윤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세계화와 지역화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p>②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 시대에 국제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p>③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소국에 대한 원조를 의무의 관점과 자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약소국에 대한 원조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p>④ 평화의 가치와 국제 평화의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평화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 고득점 방법론

● EBS 활용법

1) 기출문제와 EBS의 완전학습 + 개념의 수정과 확립

수능은 2년 전까지는 제시문 독해 능력, 선지 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도록 ‘정형화된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작년부터는 기존의 패턴과 달리 꼼꼼히 읽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평소에 쉬운 기출문제나 EBS를 풀 때, 제시문과 선지를 대충 빠르게 읽지 말고 꼼꼼히 논리와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아래 문제풀이 방법론 칼럼들을 보며 기출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이해야 하는가를 익히고 수능 때까지 기출 및 EBS 문제풀이에 적용하며 연습하자. EBS 학습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문제풀이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실전처럼 20~30문제를 시간을 재며 정확하고 빠르게 푼다. 그리고 빠른 정답지를 이용하여 채점하거나 친구에게 채점을 부탁한다. 이때, 정답 선지가 몇 번인지 적지 말고 정오 표시만 한다.

그 후 첫 문제부터 끝 문제까지 지문과 선지를 꼼꼼하게 독해한다. 헛갈리는 부분을 빨간 펜으로 ✖, ✓ 체크를 한다. 그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스스로 분석한다.

② 그 후 개념 학습용으로 사용한다.

틀린 문제, ★친 문제, 선지들에 대해서 해설지를 펴고 해당 설명을 꼼꼼하게 읽는다. 그 중 모르는 것은 인강 QnA 게시판에 질문을 하거나 문제에 해당하는 교과서, 누드교과서,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개념 설명을 찾아서 읽고 다시 한번 개념을 학습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까다로운 제시문이나 선지는 따로 노트를 만들어 사상가, 주제별로 정리하거나 해당 문항의 옆에 빈 칸에 메모해도 좋다 (포스트잇 플래그로 표시한다).

복습할 때는 이렇게 표시한 문항들, 제시문, 선지들 위주로 다시 여러 번 읽어본다.

2) 낯선 제시문 독해 및 까다로운 문제풀이 연습

낯선 제시문을 독해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것은 ‘타성’에 젓지 않은 문제풀이 태도이다. 출제자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평소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시문 독해와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읽기’이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풀면서 사상가 비교, 실천 윤리 문항을 이미 패턴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풀어간다. 제시문을 끝까지 읽기 전부터 ‘이 사상가는 ○○일 것이다. 이 문항은 A 관점 vs B 관점일 것이다.’라고 단견을 하는 것이다. 평소 이런 풀이 방식은 시간을 아껴주어 좋아 보이겠지만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식의 풀이 태도를 유지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읽기’의 문제 말고도 각 사상가의 개념 중 출제될 수 있는 ‘쟁점’, 다른 사상가와 비교될 수 있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기출문제와 EBS를 보면서 이 개념, 사상가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가? 출제자의 관점에서 각 사상가 사이의 대립구도, 쟁점들을 생각해보면서 문항들을 검토하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념어는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Words do not exist in a vacuum.)

개념어는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개념어를 배울 때, 반드시 그 개념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야만 그 의미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다. 배울 때뿐만이 아니다. 문제를 풀면서 제시문을 읽을 때, 해당 개념어와 그 개념어의 주변 단어, 문장 간의 논리적 연관성과 내용적 맥락을 통해서 그 개념어의 의미를 정확히 독해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맥락 속에서 개념을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인지 심리학의 용어 중 점화 효과(Priming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점화 효과란, 우리의 뇌에서 특정 단어와 관련된 정보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단어를 읽을 때 관련된 정보들이 함께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활과 윤리의 사상가/개념어들을 학습할 때, 그 개념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뇌에는 해당 개념어와 관련 맥락적 정보가 함께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 때, 제시문을 읽으면서 제시문 속에 있는 개념어를 보는 순간, 우리의 두뇌는 그 개념어와 연결된 정보들을 불러온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추론(Inference)'이다.

점화 효과(프라이밍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빈번하게 활성화된 개념이 그렇지 않은 개념보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개념을 정확한 논리와 내용적 맥락 속에서 학습하고, 문제들을 풀고, 제시문을 읽고, 선지를 판단하면 해당 개념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이다.

그 개념어에 대한 정보들이 머릿속에 조직적으로 저장되고, 그 정보를 반복적으로 학습, 확인함으로써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두뇌의 신경 세포(뉴런)가 발달하고 수초화되어 해당 개념과 맥락들의 연결(네트워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생활과 윤리 개념을 학습할 때, 그 개념의 논리와 배경 설명(내용적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개념서 읽기, 제시문 읽기, 선지 판단 등을 통해서 해당 개념 및 맥락적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념어(용어)의 어원을 알아보자.

학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개념어를 만들 때, 개념어의 어원과 사전적 의미를 고려한다. 그런데 많은 학생이 각 단어의 어원적 의미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단순히 개념서에 적혀있는 개념 설명만 읽게 된다. 어원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해당 개념어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아침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Breakfast는 break+fast (fast : 단식 → break : 깨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저녁을 먹은 후 아침까지는 공복 상태인데 그러한 공복 상태를 깨는(중지하는) 것이 바로 아침식사라는 의미다.

Breakfast와 유사한 원리로 한국어, 영어, 한자들도 개념어들의 어원적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한다는 '공리주의'를 생각해보자.

먼저, 공리주의는 서양의 개념이므로 영어를 살펴보자. Utilitarianism. 여기서 Utility라는 어원을 보면 유틸리티란 '공익사업, 유용성, 컴퓨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라는 의미가 있다. 공리주의에서의 공리란 '유용성'을 의미한다. 즉 공리주의 윤리학이란 유용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유용성이란, 어떤 도구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져다주나?'라는 결과주의적 입장과도 연결된다. 공리주의는 실제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선으로 보았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생활과 윤리의 1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 문제 '윤리학의 분류'에서 나오는 윤리학들은 (1) 이론 규범 윤리학 (2) 실천 규범

윤리학(응용 윤리학) (3) 메타 윤리학 (4) 기술 윤리학이 있다.

(1) **이론 규범 윤리학**은 Normative ethics. 여기서 Normative란 ‘표준의, 규범의’라는 의미이다. 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가?’라는 표준과 규범을 정해주는 이론적인 윤리학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응용 윤리학(실천 규범 윤리학)**은 Applied ethics. Applied는 ‘적용된, 응용의, 이론에서 파생된’이라는 뜻이다. 이때, 응용 윤리란 이론적인 윤리학에서 파생된 윤리학으로서 실제 현상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윤리학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3) **메타 윤리학**은 Meta-ethics. 메타 윤리학은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제공하는 규범 윤리학 그리고 그 규범을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는 응용 윤리학과는 다르다. Meta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더 높은, 초월한’의 뜻이다. 메타 이론이란, 어떤 대상의 내용적 측면이 아닌 형식적 측면을 검토하는 이론을 말한다. 즉, 메타 윤리학이란 ‘실제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과는 무관한 단지 윤리학의 이론적 형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윤리학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4) **기술 윤리학**은 Descriptive ethics. Descriptive는 ‘묘사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상황을 언어로서 묘사할 때 영미인은 Describe(말하다, 묘사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 윤리학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기술 윤리학이란, 각 민족이나 집단들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해서 그것을 글로 묘사하는 종류의 윤리학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개념어들의 어원(영어, 한자어)적 의미를 알고 사전적 의미를 아는 것은 해당 개념어에 대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머릿속에도 잘 저장되고 개념 간의 연결고리들이 더 튼튼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처럼 윤리학 용어들의 어원적, 사전적 의미를 사전으로 찾아보는 것은 생활과 윤리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직접 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교과서와 EBS 교재에 써 있는 경우도 많다. 만약 인강이나 학원,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어원적인 의미를 말해주시면 개념서의 해당 개념어 옆에 꼭 필기 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 개념화, 명제화를 통한 생활과 윤리 학습법

1) 명제란 무엇일까?

선지에서 제시되는 모든 문장은 명제다. 그렇다면 명제란 무엇일까? 명제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또한 이 명제(문장)는 최소 2가지 조건(p이면 q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개념화, 명제화란 무엇일까?

생활과 윤리는 ‘응용 윤리학’의 입장에서 현실의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 쟁점을 다룰 때, 일상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올바르게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상 언어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 상황(쟁점)들에 대해 응용 윤리학적으로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사상가가 사용하는 ‘개념어(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²⁾

개념화, 명제화란 개념을 윤리적 쟁점에 명확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어(상위 개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러므로 해당 개념의 언어적 표현들(외연)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위 개념(개념어)은 ‘범주’라고 부르며, 개별 대상(=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은 ‘외연’이라고 부른다. 또한 상위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의 공통된 속성을 ‘내포’라고 부른다.

2) 이러한 의미에서 메타 윤리학이 실제 생활에서 윤리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책의 수능 해설 부분은 각 사상가의 개념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학습자들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교과서, EBS의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

- 범주 : 개
- 내포 : 개란 사족보행 동물이다, 개과 동물이다, 원시시대 인간에게 귀속된 늑대개들의 후손이다. ~
- 외연 : 마르티즈, 치와와, 풍산개, ~

말티즈, 치와와 등은 동일한 내포를 지녔으므로 ‘개’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일 수 있으며, ‘개’라는 상위 개념은 동일한 내포를 지닌 말티즈, 치와와 등의 하위 개념으로 전개될 수 있다.

3) 개념화, 명제화의 필요성

개념화, 명제화는 특정한 용어(개념, 명제)를 사용해 그 단어(기표)가 지시하는 의미(기의)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 용어 사용 → 의미 명확히 표시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논리(연역)적 접근이 아닌 상향식 논리(귀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불명확한 단어/문장들 → 귀납 → 용어(개념)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

- (귀납 1회) 불명확한 명제 1 : 엠마 왓슨은 치와와, 마르티즈, 풍산개를 좋아한다.
→ 명제화(개념화, 일반화) : 엠마 왓슨은 / ‘개를 좋아한다.’
- (귀납 2회) 불명확한 명제 2 : 엠마 왓슨은 치와와, 요크셔테리어, 진돗개를 좋아한다.
→ 명제화(개념화, 일반화) : 엠마 왓슨은 / ‘개를 좋아한다.’
- (귀납 3회) 불명확한 명제 3 : 엠마 왓슨은 도베르만, 콜리, 풍산개를 좋아한다.
→ 명제화(개념화, 일반화) : 엠마 왓슨은 / ‘개를 좋아한다.’
- (귀납 4회) 불명확한 명제 4 : 엠마 왓슨은 슈나우저, 시츄, 푸들을 좋아한다.
→ 명제화(개념화, 일반화) : 엠마 왓슨은 / ‘개를 좋아한다.’

결과적으로 ‘엠마 왓슨은 / 개를 좋아한다.’ 라는 명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렇게 제시문과 선지들을 통해서 어떤 ‘개념어’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습득, 체화하는 것이 생활과 윤리 고득점을 위해 중요하다.

4) 생활과 윤리 학습을 위한 명제의 적용

① 어떻게 써먹지?

a. 개념 학(배움)

개념학습을 통해 ‘명제’를 정확히 기억(습득, 암기)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

b. 개념 습(확인 학습)

그 명제의 외연을(그 개념에 해당하는 제시문, 선지들) 수많은 기출문제의 제시문과 선지를 통해 귀납적으로 학습한다.

c. 실전

실전적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 제시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과 선지의 표현을 분석적으로 독해하여 ‘개념화(명제화)’한다. ⇒ 상향식 추론

② 학습과 제시문 분석에 있어서

‘니부어의 사회 윤리’를 학습한다고 생각해보자.

a. 개념 학(배움)

니부어는 개인이 선하면 사회까지 선해진다는 개인 윤리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 내에서 더 강화되며, 집단이 비도덕적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집단 간의 갈등은 두 집단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니부어는 집단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보았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을 통해서 집단들의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b. 개념 습(확인/적용 학습)

실제 기출문제, EBS 문제에서는 위의 간단명료한 니부어의 사회 윤리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단어와 표현들로 변형하여 제시문과 선지를 구성한다. 이 제시문과 선지를 독해할 때, 표현들에 니부어의 사회 윤리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서 ‘아 이런 것도 니부어의 표현이구나’, ‘아! 니부어에서 기출되었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니부어의 사회 윤리’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선지, 제시문들의 범위와 그 외연을 귀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c. 실전

문제를 풀 때, 제시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과 선지의 표현을 분석적으로 독해하여 ‘개념화(명제화)’한다. ⇒ 상향식 추론

이런 연습을 통해 니부어의 사회 윤리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지시하는 문장들을 귀납적으로 익혔다면 실전에서 그것을 발휘해야 한다.

[예]

Q. 제시문 (가)의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방법이 요청되며 ~’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는 저 문장을 통해 ‘니부어의 사회 윤리’를 읽어낼 수 있고(개념화), (가) 사상가가 니부어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반복하라. 반복 학습을 통해 해당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해당 개념이 포괄하는 외연들(선지 표현들)을 충분히 학습하라.

개념들을 충분히 학습하여 실전에서 특정 문장, 표현, 뉘앙스를 읽으면(점화) 머릿속에서 ‘어떤 사상가의, 어떤 개념인지’가 즉시 떠올라야 하고, 제시문의 표현을 네모박스, 줄치기 등으로 체크를 한 뒤 옆에 사상가의 이름과 개념을 가지런히 적을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지문 독해를 잘못하여 사상가와 개념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개념’이다. 강의나 해설지를 통해 오개념을 수정하고, 오개념 노트 or 개념서의 개념 설명 부분에 잘못 알고 있던(혹은 모르고 있던) 개념 설명을 옮겨 적어라. 이런 훈련을 통해 해당 개념어가 포괄하는 외연들이 무엇인지를 귀납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것이다.

생활과 윤리, 문제풀이 방법론 : 선지 & 제시문 & 유형별 문제풀이

● 선지 분석법

1) 선지 정오 판정법 : 선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연습

문제를 방법론 없이 풀고, 풀어서 맞혀도 ‘찝찝’했던 학생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길 추천한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느리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 때 항상 적용하다 보면 자동화되어 빨라지고, 논리력, 독해력도 늘어서, 정답률도 오르고 짱짱맨, 짱짱걸이 될 수 있다.

원칙 선지 판정의 원리 : 모든 선지는 ‘명제’이다.

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원칙을 세워서 판정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원이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원칙들을 알아야 한다.

우선, 국어든 사탐이든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선지는 ‘명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명제란 p이면 q이다. 즉, 조건 p와 조건 q로 이루어진 문장을 의미한다. 생활과 윤리의 모든 선지는 ‘명제’이며, 최소한 $p \rightarrow q$ 라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과 윤리의 제시문을 읽고 선지로 접근할 때, ‘선지는 명제이므로 나는 다음 5개의(1~5번)의 명제에 대한 정오판정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제

-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D. 사형의 해약은 사형이 방지할 해약보다 커서는 안 된다.

이 선지들은 각자 조건들로 분해할 수 있다. 주로 주부와 술부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된다.

- A. 사형은 /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수단이다.
-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 사형의 목적이다.
-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 반드시 /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D. 사형의 해약은 / 사형이 방지할 해약보다 / 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나눠 각 사상이 혹은 지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부와 술부가 각각 ○ (참 선지)인지, 주부와 술부 중 하나라도 × (거짓 선지)가 있는지 이렇게 ‘선지의 정오판정’(명제의 참/거짓 판정)을 수행한다. 그렇게 명제를 판정할 때에는 // /로 쪼개 조건들 바로 위에 각 조건의 ○, ×를 표시해준다.

‘개념’을 확실히 알고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했다는 전제하에 선지들은 그냥 참/거짓 판정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명제들이 된다. 명제를 판정할 때에는 // /로 쪼개 조건들 바로 위에 각 조건의 ○, ×를 표시해준다.

해당 선지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해당 사상이, 개념의 내용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선지가 명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p \rightarrow q$ 조건으로 나눠서

판정하는 것이 실전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이렇게 평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개념이 확실해지고(모든 선지를 엄밀하게 공부하므로)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며 정밀성이 향상 되는 효과가 있다.

2) 오답 선지의 구성 원리를 체화하라.

앞의 문제풀이 방법론의 「선지 정오 판정법」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오답 선지를 만드는 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선지를 정오 판정을 할 명제로 규정하고, 그 명제들을 틀린 명제로 만드는 오답 선지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연습을 통해 체화하라. 그러면 실전에서 문제풀이 속도와 정답률이 압도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를 파악해보자.³⁾

주어 변환 / 순서 바꾸기 / 상관없는 선지 / 두 명제를 한 명제로 합친 선지 / 틀린 내용 선지 1, 2 / 논리적으로 틀린 선지 / 잘못된 집합에 들어간 선지

① 주어 변환 : $p \rightarrow q$ 에서 주어 p 를 헛갈릴 수 있는 갑, 을 혹은 다른 사상가로 바꾼다.

• 9평 1번 문제 \neg 선지

갑은 /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 갑(메타 윤리학)에 해당하는 선지가 아닌 기술 윤리학에 해당하는 선지이다.

→ 주어를 기술 윤리학에서 메타 윤리학으로 바꾸면서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 9평 13번 문제 1번 선지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 갑은 노직이고, 을은 롤즈이다. 정의의 원칙을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한 것은 롤즈이다.

→ 그런데 이 선지는 을(롤즈)에 해당하는 조건 q 의 주어를 노직으로 바꾸면서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② 주어 순서 바꾸기 : '갑은 을보다 ~ 한다.'가 옳은 경우, 갑과 을의 순서를 바꿔 버린다.

→ 을은 갑보다 ~ 한다. (×)

• 2014년 3월 교육청 1번 문제 5번 선지

메타 윤리학은 응용 윤리학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메타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의 위치를 바꿔서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③ 상관없는 선지 (p 와 q 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선지)

• 2016학년도 9평 5번 문제 2번 선지

(나)는 / 만물의 변화는 물질적 요소의 이합집산일 뿐이라고 본다.

→ (나)는 불교이다. 그런데 / 이후의 조건 q 는 유불도 모두 아닌 상관 없는 선지이다.

→ 조건 p 와 상관없는 조건 q 를 서로 연관 지어서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3) 유대중, 「국치독 :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솔티북스, 2016, LV2 참고

④ 두 명제를 한 명제로 합친 선지 (최소 1개 명제가 오답)

• 2016학년도 9평 9번 문제 3번 선지

값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음은 공유 재산으로 본다.

→ 이 선지는 2가지 $p \rightarrow q$ 명제를 1개로 합쳤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1개의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 이 선지를 나눠보자.

㉠ 값은 /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본다.

㉡ 음은 / 생산된 정보를 공유 재산으로 본다.

→ ㉠ 명제 $p \rightarrow q$ 는 참임을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 명제 ' $p \rightarrow q$ '는 거짓임을 판정할 수 있다.

→ 이렇게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이 여러 개라면 논리적인 단위 $p \rightarrow q$ 로 분할하여 선지를 판정한다.

⑤ 틀린 내용 선지 I : 중간에 틀린 단어(개념)가 추가/교체된 경우

• 9평 3번 문제 ㄷ 선지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소유 대상(×). '사랑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 or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맞는 선지인데, 중간에 '소유 대상으로'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오답 선지를 구성하였다.

• 9평 6번 문제 ㄷ 선지

집단의 도덕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비례한다.'로 고쳐서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 9평 20번 문제 5번 선지

허심에서 깨어나 모든 망상과 번뇌로부터 초월한 존재이다.

→ 허심은 모든 망상과 번뇌를 초월한 상태, 추구해야할 경지이지, '깨어나'야 할 부정적 상태가 아니다. '깨어나'를 추가하여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 9평 18번 문제 5번 선지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 불가능(×), 세계 평화는 가능하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로 교체하여 오답 선지를 구성했다.

⑥ 틀린 내용 선지 II : 문장 전체가 틀린 경우 (①, ⑤와 유사 유형)

• 9평 17번 문제 ㄴ 선지

음은 /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 뒤 조건 q는 음의 입장이 아니다.

• 9평 5번 문제 3번 선지

유교는 천지를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대상으로 본다. → p, q의 연결이 잘못 되었고, q는 틀린 문장이다.

⑦ 논리적으로 틀린 선지

• 9평 10번 문제 꺾 선지 레진

깨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다.

⑧ 범주(집합, 판단 내용)가 잘못된 선지

벤 다이어그램, 순서도와 같은 문제는 선지 자체는 옳은 선지이지만 집합, 판단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알고도 틀리는 일이 발생하므로 평소예 각선지 옆에 A, B, C, D 집합에 대한 갑, 을, 병의 해당 여부를 표시해 놓고 풀어야 한다. 예컨대, A는 갑과 을 모두 동의, B는 갑은 동의, 을은 반대 이런 식으로 써놓고 푼다. 절대 실수하지 말자.

• 2016학년도 9평 10번의 꺾 선지 B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 1단계 : 명제로 나눈다.

㉠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가?

㉡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가?

㉠, ㉡ 둘 다 옳으므로 선지의 진리 값 자체는 참, 옳은 선지이다.

→ 2단계 : 갑, 을, 병 판정을 한다.

ㄴ. B : 인간은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다.

이 선지가 B로 들어가려면 오직 패스모어만 이 선지에 대해 긍정, 레진과 레오폴트는 부정을 해야 한다.

레진: ㉠ = ○, ㉡ = ○

패스모어 : ㉠ = ○, ㉡ = ○

레오폴트 : ㉠ = ○, ㉡ = ○

갑, 을, 병 모두 긍정하는 선지이므로 이 선지는 B가 아닌 C에 들어가야 한다.

→ 따라서, 이 선지는 참인 명제이지만 벤 다이어그램 내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서 오답으로 구성했다.

● 제시문 독해 심화 연습 : 문장 구조 및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분석하라.

★ 킬러 문항의 제시문이나 선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학습할 것!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문제(정답률 23%). 2015학년도 수능 14번(정답률 36%). 이 두 문항은 최근 평가원 및 수능 기출문제 중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항들의 핵심은 제시문 내의 주요 문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것이었다.

문장을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문장을 구문론적으로 접근하고,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읽어내는 것을 말한다. 문장이 복잡하게 쓰였을 경우, 위에서 말한 조건으로 나눠서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문장의 정보를 계층별로 분류하여 이 문장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독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선 이번 칼럼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판별하고, 문장이 지시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 먼저, 영어와 한글 문장을 통해 문장 내 정보의 층위를 분석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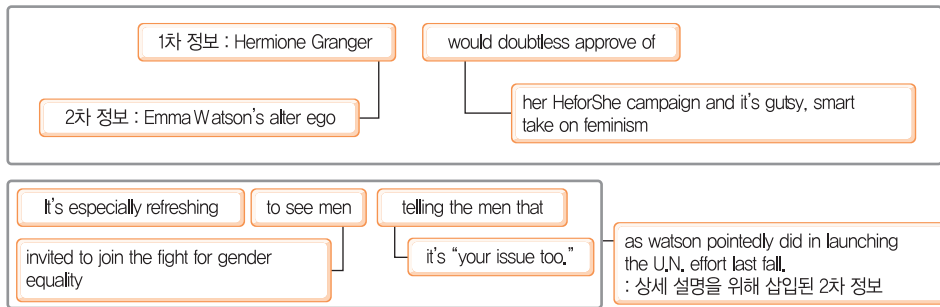
1) 영어에서의 문장 내 정보의 층위 분석

Emma Watson's alter ego Hermione Granger would doubtless approve of her HeForShe campaign and its gutsy, smart take on feminism. It's especially refreshing to see men invited to join the fight for gender equality, as Watson pointedly did in launching the U.N. effort last fall, telling the men that it's "your issue too."

길고 복잡한 문장의 경우, 그 구조가 계층적으로 나뉜다. 위와 같이 명사구의 핵, 동사구의 핵이 1차 정보로 제시되고, 그 핵을 앞/뒤로 수식하는 2, 3차 정보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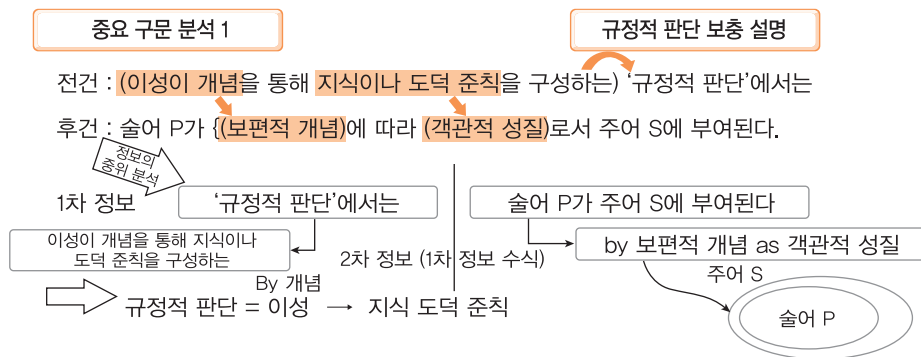
Emma Watson's alter ego Hermione Granger would doubtless approve of her HeForShe campaign and its gutsy, smart take on feminism.

It's especially refreshing to see men invited to join the fight for gender equality, as Watson pointedly did in launching the U.N. effort last fall, telling the men that it's "your issue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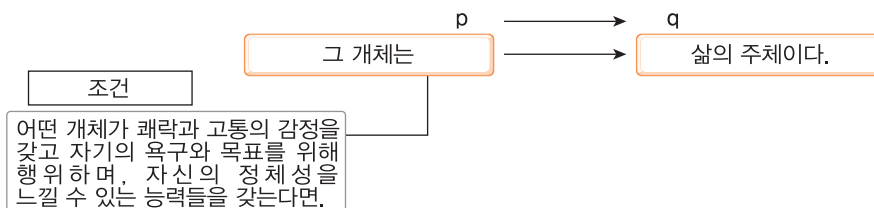
2) 한국어에서의 문장 내 정보의 층위 분석 : 2015학년도 수능 국어(공통)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①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번 문제(정답률 23%)를 분석해보자.

갑 :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들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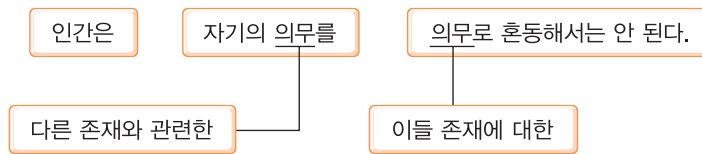


1차 정보는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이고 ‘어떤 개체가 ~ 갖는다’ 부분이 2차 정보로서 그 개체에 걸려 있다.(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조를 파악한 후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독해하면 만약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춘다면 → 그 개체는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개체가 ~ 갖는다’ 부분은 ‘그 개체가 삶의 주체이다.’라는 1차 정보의 2차 정보로서 1차 정보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조건들이 여러 개이므로 ㄱ. 쾌감감수능력은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인 것이다. ⇒ 핵심 선지 해결

② 2015학년도 수능 14번(정답률 36%)를 분석해보자.

병 :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①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의미이다.
- ②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이렇게 구조를 파악한 후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독해하면 1차 정보
 : 인간은 자기의 의무를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때, 자기의 의무와 의무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자.

인간은 /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의무’에는 ‘다른 존재와 관련한’이 2차 정보로 걸려있고, ‘의무’에 이들 ‘존재에 대한’이 2차 정보로 걸려있다.

우리는 칸트가 오직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만을 인정했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오로지 간접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한 것을 배웠다. 그러한 맥락적 이해를 위의 문장에 적용하면 ‘관련한’, ‘대한’이라는 수식어의 의미를 조금 더 민감하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관련한’ 자신의 의무란, 칸트가 말하는 자신의 의무 즉,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와 관련한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간접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란 이들 존재를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칸트는 <인간은 /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에서 <인간은 / 인간만을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대우하는 자신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에서 파생된 비인간 존재에 대한 간접의무 / 를 / 비인간 존재를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대우하는 직접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보의 계층을 분석하는 것은 킬러 문제의 제시문이나 선지에서 사용하면 된다. 쉬운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지만 어려운 제시문, 복잡한 제시문은 정보의 층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동원할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 1차 정보와 2차 정보를 나눈 후 2차 정보와 그것이 수식하고 있는 1차 정보의 해당 단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독해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유형별 문제풀이 I : 제시문 분석법 (쟁점을 기준으로 제시문 독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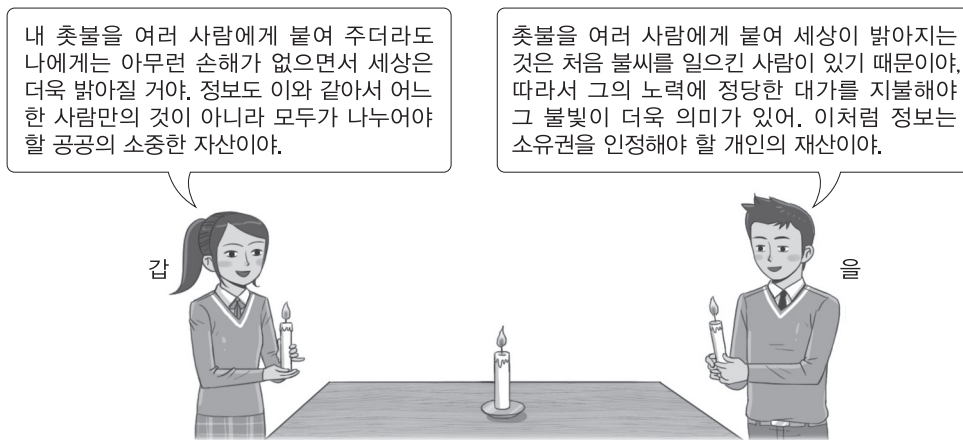
생활과 윤리에는 특별한 배경지식 없이도 풀 수 있는 쉬운 ‘응용 윤리’ 문항들이 출제된다. 이런 유형의 문항을 틀리면 등급과 백분위에서 손해가 크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항을 푸는 문제풀이 방법론을 정확히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는 ‘1등급 컷 41점, 2등급 컷 38점’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해 문제의 유형이 진화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정보 공유론(Copy left) vs 정보 사유론(Copy right)과 같이 ‘찬성 vs 반대’의 대립되는 입장을 단순 출제했다. 학생들은 갑과 을은 당연히 서로 대립되는 입장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지 않고 ‘아 이건 찬성이네’, ‘이건 반대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곤 했다. 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그 이전까지 출제되었던 ‘갑 vs 을’ 패턴의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고, 독해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대거 출제되어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러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초는 그대로 수능으로 이어졌고,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전 수능보다 진화된 유형의 독해 문제가 출제되었다.

① 기존 출제유형 문항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1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한다.
- ③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현자의 돌 평

전형적인 응용 윤리 문항으로, 제시문 독해를 통해 문제를 푸는 유형이다. 갑은 정보 공유론을 주장하는 반면 을은 그 반대인 정보 사유론을 주장하는 단순한 갑 vs 을 구도의 문제이다.

제시문 독해

•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쟁점 A 정보는 사유 재산인가?	×	○
쟁점 B 정보 공유는 정당한가?	○	×

각 입장은 상반된 입장으로 오로지 차이점만이 존재한다. 서로의 공통점은 없다.

• 선지 해설

- ①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갑은 정보 공유를 통해 세상이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본다. ⇒ 제시문 독해
- ②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다. 을은 정보 생산자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정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촛불의 첫 불씨를 장려) ⇒ 제시문 독해
- ③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갑이 옳다고 주장할 주장이다. ⇒ 주어 변환
- ④ 갑은 정보 공유론으로 정보는 ‘공공의 자산’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을은 정보 사유론으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보는 입장이다. ⇒ 쟁점 A
- ⑤ 갑과 을 모두 정보는 마치 촛불과 같아 여러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촛불을 나눠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정보 또한 나누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기존 출제유형 문항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음악[樂]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음성과 동작에는 성정(性情)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 채움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으며,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

<보 기>

- ㄱ.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 ㄴ.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 ㄷ. 예법에 맞는 음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 ㄹ. 음악에 대한 도덕적 규제는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은 유교의 예악론이다. 보통 유교나 플라톤과 같은 예전 사람들은 예술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도구로 보았다. 예술에 대한 절대적 도덕주의로 보고 풀면 된다.

선지 ㄱ, ㄴ은 제시문의 ‘성정의 변화’, ‘음악을 통해 도를 얻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지 ㄷ은 ‘음악은 도로써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한다. 욕망을 제어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지 ㄹ은 오히려 위의 제시문은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음악을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③ 신유형 문항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번

9.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현자의 돌 평

이전에 출제되었던 단순한 정보 공유론 vs 정보 사유론의 유형이 아니다. 이 문항은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두 입장의 공통 쟁점과 대립 쟁점들을 정확히 독해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시문 독해

이 제시문은 국어 비문학의 화작문을 푸는 것과 같은 독해를 해야 한다. 갑과 을의 대화에서 공통적인 주장과 서로 다른 주장을 분류해야 한다.

- 갑은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only
- 을은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하지만 부자와 빈자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공적 부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 A + b

•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쟁점 A: 정보 생산자의 정보 저작권 인정 여부	○	○
쟁점 B: 정보 격차 감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복지)의 필요성 여부	×	○

• 선지 해설

- ①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갑이 정보 격차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독해
- ② '경제적 약자도 ~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을이 정보 복지를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독해
- ③ 틀린 선지이다. 갑과 을은 모두 정보 생산자의 권리(저작권)을 인정한다. ⇒ 쟁점 A
- ④ 갑과 을은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저작권을 갖는다고 인정하며, 정보 사용료를 생산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 제시문 독해
- ⑤ 갑과 을은 모두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 보장을 강조한다. ⇒ 제시문 독해

풀이 전략 소개

제시문을 읽고 갑과 을의 공통 쟁점과 상반 쟁점을 간단한 표를 그려서 정리한다.

제시문 출제 패턴이 단순 ‘갑 : 찬성 vs 을 : 반대’ 유형에서 ‘갑 : A only, 을 : A + b(차이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생활과 윤리의 독해 문항들은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복잡한 쟁점이 출제될 경우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항이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체계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며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기르자.

④ 실제 수능 및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정답률 88%

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의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 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하는가?

현자의 돌 평

이 제시문은 비문학에서 화작문을 푸는 것과 같은 독해가 필요했던 제시문이다. 갑과 을의 대화에서 공통적인 주장과 다른 주장을 분류해야 한다.

제시문 독해

- 쟁점 A :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의학적 간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쟁점 B : 하지만 갑은 더 나아가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을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쟁점 C : 또한 갑은 그러한 유전자 개량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로운 삶을 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을은 그러한 유전자 개량은 우생학적 조치이며, 미래 세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A : ‘치료’ 목적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
B : ‘유전자 개선’ 목적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	○	×
C : ‘유전자 개선’이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	○	×

• 선지 해설

갑은 부정, 을은 긍정할 질문을 찾는 것이다.

- ① 쟁점 A : 갑과 을 모두 치료 목적 유전자 조작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쟁점 B : 유전자 개선 목적의 유전자 조작을 갑은 허용(○), 을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쟁점 C : 유전자 개선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갑은 긍정적으로(○), 을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④ 쟁점 C : 3번과 동일한 문제
- ⑤ 쟁점 C : 유전자 조작을 통해 미래 세대를 개량한다면 갑은 자유를 강화, 을은 자유를 박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지 5에 대해서는 갑은 부정하고, 을은 긍정할 것이다.

⑤ 실제 수능 및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

2016학년도 수능 2번

2.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만으로도 : 충분조건

을 :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② 을 :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 동등하게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병 : 기업은 항상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조건부)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④ ~~갑, 을~~ :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 ⑤ 을, 병 :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현자의 돌 평

정답률 92%의 쉬운 문제이지만 실수를 피하기 위해 평소에 쟁점별로 정리하며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쟁점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을 주목하자.

제시문 분석

갑 : 갑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윤 추구’로 한정하는 입장이다. 특히 ‘~것만으로도’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때, ‘만으로도’는 ‘~만 하면’과 같은 충분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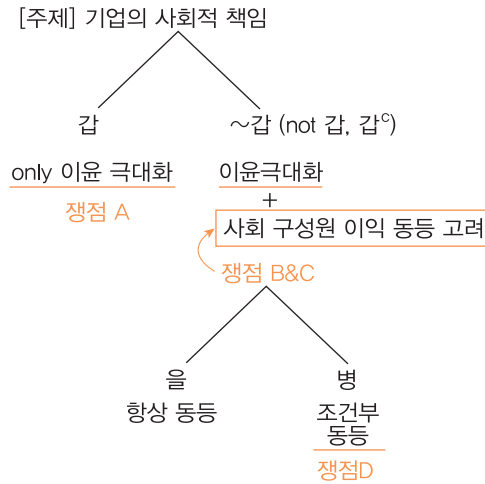
을 :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까지 확장한 입장이다.

병 : 을과 유사한 입장으로,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때만 조건부로 성립한다. 만약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병
쟁점 A: 이익 추구는 기업의 목적 (갑, 을, 병 공통 전제)	○	○	○
쟁점 B: 기업이 이익 추구 이외 사회적 책임 인정 여부 (갑 vs 을, 병)	×	○	○
쟁점 C: 사회 구성원 이익 동등 고려 (을, 병 공통 전제)		○	○
쟁점 D: 사회 구성원 이익 충돌 시, 주주의 이익 우선 고려 (조건부 동등)		×	○

• 이항 대립표



• 선지 해설

- 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을과 병이다. ⇒ 쟁점 B
- ② 을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 쟁점 C
- ③ 병이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만 이다. ⇒ 쟁점 D
- ④ 갑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갑은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 쟁점 B
- ⑤ 을과 병 모두 기업이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지닌다고 본다. ⇒ 쟁점 C

※ 참고 : 수능특강 146p

	기업의 합법적 이윤 추구를 긍정하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긍정하는가?
프리드먼, 스미스 자유주의 (자유 경제)	○	×
보겔, 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

이런 문항은 논리적인 독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하지만 출제되는 쟁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기업의 역할을 오로지 '합법적 이윤 추구'로 본다. 그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시장 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업의 역할이 '합법적 이윤 추구'임을 긍정하는 동시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또한 그들은 기업의 이익은 단순히 기업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기업 환경을 조성해준 정부, 기업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여 기업 이익에 공헌한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⑥ 실제 수능 및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

2016학년도 수능 6번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경기 중에 발행하는 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 위반이 모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을 : 동의합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으니 예의 없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갑 : 아닙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물론, 합당한 벌칙을 예상하며 승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은 경기 규칙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술적 반칙도 심판을 속이는 반칙과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를 오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①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② 심판을 속이는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③ 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④ 승리를 위한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현자의 돌 평

스포츠 윤리는 매체(언론) 윤리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제시문 분석

갑과 을은 모두 경기 중 발생하는 규칙 위반의 종류를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 즉, 의도성 여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갑과 을 모두 비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갑은 의도적인 반칙 중에서도 전술적인 반칙의 경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을은 모든 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쟁점 A : 비의도적인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
쟁점 B : 의도적 반칙 중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

• 선지 해설

갑은 ○, 을은 ×인 질문을 골라야 한다. (단, 교육과정에서 삭제됨.)

- ① ×× ⇒ 쟁점 A
- ② ○○ : 을의 마지막 말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반칙은 전술적 반칙과 심판을 속이는 반칙으로 나뉘며, 심판을 속이는 반칙은 갑이 인정하는 전술적 반칙이 아니므로 결국 갑과 을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반칙이다.
- ③ ×○ : 4번 선지와 경쟁 답안이다. ⇒ 쟁점 B
- ④ ○× ⇒ 쟁점 B
- ⑤ ○○ :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

⑦ 실제 수능 및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

2016학년도 수능 13번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음악은 즐거움[樂]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선황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 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
 을 : 음식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인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보 기>

ㄱ. 갑은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현자의 돌 평

각 제시문을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어의 화작문이나 비문학 문항처럼 푸는 문항이다.

⇒ 각 사상가가 누구인지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항이다.

제시문 분석

갑 : 예술의 예(사회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양 사상가의 입장이다. ⇒ 유교, 순자의 예악론

을 : 예술의 이웃 사랑, 교류와 같은 사회적 효용(사회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톨스토이

두 제시문 모두 예술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공통 쟁점

그러나 갑은 예술의 즐거움을 인정하는 반면, 을은 예술의 즐거움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쟁점 A : 예술의 사회적 기능(사회성)을 강조하는가?	○	○
쟁점 B : 예술로 인한 즐거움(심미적 가치, 미적 욕망, 쾌락)을 인정하는가?	○	×

• 선지 해설

ㄱ. 갑은 ‘음악은 즐거움, 감정상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미적 욕망을 인정한다. 물론 그러한 미적 욕망은 사회적 도리(예)에 맞아야 한다.

⇒ 쟁점 B

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 심미주의의 입장이다.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예술 외적인 것. 예컨대, 사회적 기능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갑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ㄷ. 을은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쟁점 B

을은 오로지 사회적 기능(사회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쟁점 A

- 그래프 Y축 : 민주주의 < 민본주의 → 낮음
- 그래프 Z축 : 민주주의 > 민본주의 → 높음

문제풀이 방법 적용

① 가장 쉬운 Z부터 해결해보자. (나)는 민본주의로, 최종 결정권은 통치자(특히 왕)만이 가지고 있는 반면, (가)는 민주주의로 최종 결정권이 모든 구성원(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Z는 (가) > (나)이다. (나)는 (가)에 비해서 Z를 강조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그래프상 Z값은 높음이 아닌 낮음으로 가야 한다. ⇒ Z값이 높음으로 되어있는 ㉠, ㉡, ㉢을 지운다.

② 그 다음으로 판단하기 쉬운 X을 해결해보자. (나)는 민본주의로, 통치자인 왕은 임기의 제한이 없다. 교체도 왕이 죽거나 정변이 일어나서 비정기적으로 교체될 뿐 정기적으로 교체되지 않는다. 반면 (가)는 민주주의로, 통치자(대통령, 수상 등 국민의 대표자)는 임기의 제한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체된다(선거). 따라서 X 또한 (가) > (나)이다. (나)는 (가)에 비해서 X를 강조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그래프상 X값은 높음이 아닌 낮음으로 가야 한다. ⇒ X값이 높음으로 되어 있는 ㉢을 지운다.

선지가 1개 남았으므로 답은 ㉠이다.

③ Y를 판단하지 않아도 답이 도출되도록 문제가 설계되었다. 이는 난이도가 높을 것을 걱정한 교수의 배려이다. 생활과 윤리 문항은 이렇게 X, Y, Z 중 2개만 판단해도 선택지가 1~2개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쉬운 선지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자.

● 유형별 문제풀이 Ⅲ : 십자말풀이(크로스워드)

1) 유형 해결 방법

십자말풀이(크로스워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제시문이 까다롭게 출제되어 어떤 사상인지 혼동을 주는 경우도 많다. 크로스워드 열쇠로 암기식 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들도 물어보기 때문에 개념어들을 꼼꼼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 상식이 부족한 학생 등이 어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시문과 열쇠의 키워드를 100% 알지 못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맞출 방법이 있다.

※ 참고 ①

기존 크로스워드 유형에서는 (가)로 동양 사상 제시문을 제시, 유교인지 도교인지 알기 어렵게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개정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는 동양 사상(유불도)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로 동양 사상 제시문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로 어떤 제시문이 출제되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2) 대비법

(가)는 낯선 제시문, 혼동되는 제시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때 교과서, 참고서 혹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제시문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각 사상의 논리와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의 열쇠들을 위해서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의 본문 옆에 용어(단어, 어휘) 설명으로 나온 것들을 한두 번씩 읽어주는 성의가 필요하다. 용어 설명은 그냥 안 읽고 지나치는 학생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용어 설명도 읽도록 하자.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깊이 있는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된다.

※ 참고 ②

(가)가 어떤 사상인지를 파악한다면 (나)의 열쇠를 다 모르거나 하나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의 열쇠를 모른다고 해도 겁먹지 말고 선지를 잘 지워나가면서 풀어보자.

선지 ①~⑤를 위해서는 개념 공부를 하고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선지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자. 크로스워드 유형의 선지는 낱사가 은근히 많이 출제된다. 예컨대, ‘(마르크스 노동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와 같은 유형의 선지가 출제될 수 있다. 이 선지에서 틀린 것은 마르크스는 ‘노동의 분업’을 싫어한다는 것, 오히려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노동의 분업’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가) 사상가의 개념어의 의미를 반대로 출제하는 식의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 ⑤ 틀린 내용 선지 I : 중간에 잘못된 단어(개념)이 추가된 경우

2016학년도 수능 7번

7.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새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																																	
(나)	<p>[가로 열쇠]</p> <p>(A) :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p> <p>(B) :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樂)의 값. 인과○○</p> <p>[세로 열쇠] (A) : …… 개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d style="width: 10%;"></td></tr> <tr><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A)</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style="text-align: center;">(B)</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A)							(B)														
		(A)																																
	(B)																																	

-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 ⑤ 무한한 복제, 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현자의 돌 평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문항이다. 십자말풀이(크로스워드) 유형은 매년 오답률 Tp 5에 들어가곤 했다. 2017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 주의하자. 그런데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아진 유불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유형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 개정 교육과정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특강 등에서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시문 분석

(가) 정보의 소유권(저작권)을 부정하는 정보 공유론(카피 레프트)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저 주는 제시문은 잘 출제되지 않는다.

(정답률 86%의 아주 쉬운 문제)

(나) 가로 열쇠

- (A) : 솔직히 수능장에서 몰랐음. ‘정실주의’라네요.
- (B) : 상식 테스트 수준. ‘인과응보’

만약 가로 (A)를 모른다고 생각하자. (가)는 정보 공유론이고, 세로 열쇠는 ‘오보’. 아마 정보일 수도 있겠다. 가로 (A)에도 사사로운 ‘정’이라고 써있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지를 본다.

• 선지 해설

- ① × :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해야 진화에 도움이 된다. 제시문에서는 오히려 정보 공유의 자유를 막는 소유권이 진화를 방해한다고 말한다.
- ② × :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은 (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어디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말한다. ⇒ 교과서, EBS에 나와 있었던 개념
- ③ ○ : 정보 공유론의 입장에서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제시문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 선지이다.
- ④ × : (가)는 소유권을 부정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가)와 맞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전할 수도 없다.
- ⑤ × : 정보 사유론(카피라이트)의 입장이다. (가)는 소프트웨어(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 참고 ③

Sol① : 제시문 (가)의 입장만 아는 경우

열쇠를 풀지 못해도 선지에서 (가)의 입장이 아닌 것만 소거해서 풀자. ⇒ 맞출 확률 높이기

Sol② : 제시문 (가)의 입장을 알고, (나)의 열쇠 중 일부만 아는 경우

Sol①과 같은 방식으로 소거해서 풀자. ⇒ 맞출 확률 높이기

Sol③ : 제시문 (가)와 (나)의 열쇠를 모두 아는 경우

Best이다. 선지에서 아닌 것을 소거하고, 옳은 것을 확실하게 고르자.

● 유형별 문제풀이Ⅳ : ㄱ, ㄴ, ㄷ, ㄹ 유형 해결하기

1) 유형 해결 방법

이 유형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단순 5지 선다형의 경우보다 더 많은 개념을 물어볼 수 있고, 복잡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평가원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 문항의 경우, 다른 유형들이나 개념들과 엮여서 출제될 수 있다. 단순히 독해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 복잡한 유형(벤 다이어그램, 순서도)과 엮여서 문제가 나온다면, 개념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은 유형이다. 복잡한 유형과 엮여서 출제될 때에는 해당 유형(벤 다이어그램 등)을 푸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개념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잘 짚는 수밖에 없다. 잘 짚는 방법으로는 위의 ‘십자말풀이(크로스워드)’에서처럼 ‘소거법’이 적절하다.

ㄱ~ㄹ 중에 모르는 선지가 1~2개 있더라도 확실히 아는 선지가 2개 이상 있다면 소거법을 통해 정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2) 대비법

Sol① 유형별 풀이법(벤 다이어그램 등)을 안다

Sol② 개념을 학습한다.

Sol③ 모르는 선지가 나와서 소거법을 사용해서 선택지를 지워준다. (정답을 고를 확률 UP!)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예술은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불필요하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을 : 예술은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예술은 오직 인류애를 위한 것이며, 예술의 목적은 미(美)도 아니고 쾌락은 더더욱 아니다.

< 보 기 >

㉠ 갑은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 을은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 을은 갑과 달리 선(善)을 증진하는 예술을 좋은 예술로 본다.
 ㉣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을은 사회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

㉠, ㉢

㉡, ㉣

㉠, ㉢, ㉣

㉡, ㉢, ㉣

현자의 돌 평

예술론은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단순하게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을 물어보는 쉬운 문제로 출제하였으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갑 vs 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독해해야 하는 경향이 반영된 문항이다.

제시문 독해

갑은 예술을 오직 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절대적 심미주의의 입장이며, 을은 예술의 목적은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이다.

그러지만 기존의 문항들과 다른 부분은 갑과 을 모두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가 존재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선지 ㄴ로 출제된 부분이다.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갑 vs 을 구도의 경우, 공통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쟁점 정리

쟁점/입장	갑	을
1. 예술은 그 자체로 목적인가? (자율성)	○	×
2. 예술은 사회를 위한 도구인가? (사회성)	×	○
3. 예술에 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선지 해설

- ㉠ 갑은 예술은 오직 아름다움, 예술적 가치만을 추구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 을은 예술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적 요소가 예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예술에서의 미적 요소를 긍정하는 것은 갑, 을 공통이다.
 - * 을은 ‘미(美)’가 예술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미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 ㉢ 선을 증진한다는 것은 도덕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을은 긍정, 갑은 부정할 견해이다.
- ㉣ 예술의 독립성이란, 예술이 다른 가치들로부터 독립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예술의 사회성이란 예술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고취시켜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이 어렵고 논란도 많았던 선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까 한다.

- Step 1 : 우선 ㉠은 누가 봐도 맞는 선지. 따라서 ㉠이 없는 ㉢, ㉤를 지워준다.
 - Step 2 : 그리고 ㉡ 또한 판정하기 쉽다. 따라서 ㉡이 없는 ㉠을 지워준다.
 - Step 3 : 그리고 ㉡을 판정한다. ㉡ 또한 옳은 선지이다. 따라서 ㉡이 없는 ㉡를 지워준다.
- 그러면 ㉠을 몰라도 답을 ㉣로 고를 수 있다.

● 유형별 문제풀이 Ⅶ : 서술형 평가 유형 해결하기

서술형 평가 유형은 간단하다. 선지 ㉠~㉤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풀어주면 된다. 각 선지에서 틀린 부분을 X, V로 체크하면서 각 선지를 소거하면 된다.

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 나는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선택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을 : 나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 학생 답안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제로 낙태를 찬성한다. 이에 비해 ㉡을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낙태를 반대한다.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여성은 남성처럼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는 주장이 있으며, 을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어 생명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이 있다. 갑, 을의 입장을 정리하면 ㉤갑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을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이런 문제는 응용 윤리 독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각 입장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들을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쉽게 맞출 수 있다. 또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제시문 '을'은 태의 생명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한다. 그런데 ㉡은 출생 이전 태아(배속의 아기) 상태가 아닌 출생 이후의 아기에게 생명권이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는 을의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 참고 : 낙태 찬성

- ① 소유권 논거 :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논거
- ② 평등권 논거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낙태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거
- ③ 정당 방위권 논거 :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는 논거

주의해야 할 점은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정당방위 논거의 경우, 태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 방위론의 입장에서는 '비록 태아가 존엄한 존재이고 가치를 지닌 존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강제로 강간을 당해 임신을 했다면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톰슨의 바이올리니스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해당 비유에서 바이올리니스트는 의식이 없이 피랍된 사람의 신장에 연결되어 있는 ‘무고한 인간 존재’이다.

- 낙태 허용 : 소생자 평정프 (프 : 프라이버시권)
- 낙태 반대 : 존무잠 → 자세한 설명은 수능특강 36p를 참고하자.

● 유형별 문제풀이 VI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0번
 ‘충분조건’이 뭔가요? →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구분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ㄱ)	A :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Q. 9평 10번 선지가 왜 틀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충분조건을 찾아보니까 포함 관계로 이해할 수 있던데요. 예를 들어 ‘엄마 왓슨은 여자이다.’ 여기서 ‘엄마 왓슨’은 충분조건 ‘여자’는 필요조건이잖아요. 포함하는 쪽이 필요조건이고 포함 당하는 쪽이 충분조건이구요. 그러면 ㄱ 선지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것들은 쾌고감수능력뿐 아니라 제시문에 나온 정체성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면 쾌고감수능력은 부분이니 충분조건 맞지 않나요?

A.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A는 B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 A만 있으면 B하기에 충분하다

A는 B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 A만 있으면 B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다른 C, D, E 등이 더 필요하다

레건에게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레건에게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조건은 쾌고감수능력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본문에 나온 것들). 아시겠죠? ^^

P : 쾌고감수능력을 갖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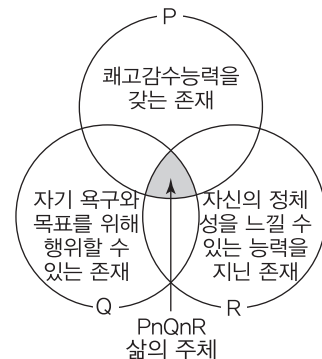
Q : 자기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존재

R :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

* 삶의 주체 :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존재 = PnQnR

• 삶의 주체인 존재 = 이익 고려 ○ / 도덕적 존중 권리 ○

• 삶의 주체인 존재(이익 고려를 받는 존재)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의 집합 P의 부분집합



따라서, 쾌고감수능력은 삶의 주체, 이익 고려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 유형별 문제풀이Ⅶ : 벤 다이어그램 유형 해결하기

1) 유형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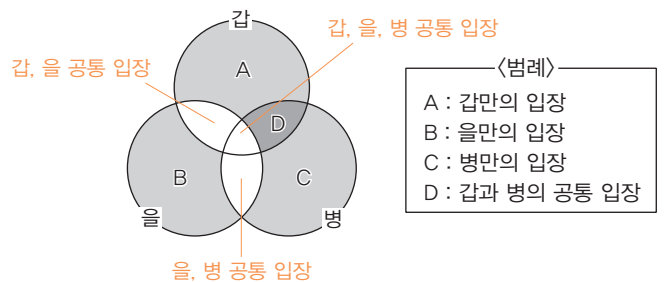
벤 다이어그램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선지가 옳은 선지라고 할지라도 그 선지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들어가야 할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선지는 틀린 선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 유형은 ① (진릿값) 해당 사상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당 선지가 참인가? ② (위치 정보) 해당 선지가 다른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맞는 선지가 아닌가?) 라는 두 단계에 걸친 판정 연습을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갑, 을, 병의 입장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갑 : 동물 중심주의, 을 : 생태 중심주의, 병 : 인간 중심주의가 출제되었을 때, 갑, 을, 병이 아닌 '생명 중심주의' 철학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선지를 판정할 때, '선지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라는 선지에 대한 입장을 판정할 경우, '~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vs 갖지 않는다.' 만을 생각해야 한다. 괜히 생명 중심주의도 감각을 지니지 않은 존재(식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데, 이게 맞는 선지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2) 대비법

2015학년도 수능 14번

정답률 88%

(가)	<p>갑 : 단지 호모 사피엔스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다. 쾌고감수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p> <p>을 : 인간만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 관심을 초월한 새로운 의무, 즉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를 자신에게 부과한다.</p> <p>병 :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p>
(나)	

<보 기>

- ㄱ. A :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ㄴ. B :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탈 인간 중심주의가 요청된다.
- ㄷ. C :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ㄹ. D :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문제풀이 방법 적용

갑은 피터 싱어, 을은 롤스톤, 병은 칸트다. 각각의 선지를 2차에 나눠서 판정해보자.

ㄱ. A :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1차 (진릿값 판정) : A는 only 피터싱어 → 이성은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참)

- 2차 (위치 정보 판정) : 을의 입장에서 → 생태주의이므로 ㄱ 명제를 긍정할 것이다. 병의 입장에서 → 인간 중심주의이므로 ㄱ 명제를 부정할 것이다. → ㄱ 명제의 올바른 위치는 갑과 을의 교집합 부분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

ㄴ. B :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탈 인간 중심주의가 요청된다.

- 1차 (진릿값 판정) : B는 only 롤스톤 →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 탈인간 중심주의가 요청된다. (참)

- 2차 (위치 정보 판정) : 갑은 감정주의로서 인간만이 아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들의 이익관심을 고려하고 그들을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므로 →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가 요청된다. (○)
병은 인간 중심주의이므로 →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가 요청된다. (×) → ㄴ 명제의 올바른 위치는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다. 따라서 틀린 선지.

ㄷ. C :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1차 (진릿값 판정) :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이므로 →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 2차 (위치 정보 판정) : 갑 →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을 →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 따라서 ㄷ 명제는 (병에 대하여) 참이며, 올바른 위치에 들어 있다.

ㄹ. D :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 1차 (진릿값 판정) : 갑은 피터 싱어로 인간과 일부 동물을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식물의 내재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
병은 칸트로,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

- 2차 (위치 정보 판정) : 을은 생태 중심주의자로 생태계의 모든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 → ㄹ 명제는 (갑과 병에 대하여) 참이며, 올바른 위치에 들어 있다.

Part 2에서 벤 다이어그램 유형의 풀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각자 기출문제를 가지고 각 선지들(명제들)을 2차로 나눠 풀어보는 연습을 하자.

● 유형별 문제풀이 Ⅷ : 순서도 유형 해결하기

1) 유형 해결 방법

순서도 유형은 벤 다이어그램 유형과 유사하나 풀이 순서가 반대다. 순서도 유형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1단계 : 각 판단 내용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각각 ○ or × 중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먼저 적어준다.
- 2단계 : 그 후 '두 명제를 한 명제로 합친 선지(최소 1개 명제가 오답)' 풀이처럼 해당 판단 내용을 1~3개의 명제로 나눠서 풀면 된다.

어디에 들어가야 맞는 선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된다. 어디에 들어가야 맞는가는 벤 다이어그램에서만 판정하고, 순서도에서는 오로지 해당 판단 내용이 '1단계:갑 & 을의 입장에서 ○ or ×가 되어야 하는지', '2단계 : 해당 선지가 1단계에서의 판단과 일치하는지'를 판정해주면 된다.

★ 주의해야할 점은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며, 오로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신경써야 한다는 점이다. 순서도 유형은 오로지 '주어진 조건'만을 따져야 한다.

2) 대비법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5번 (대표 문제)

1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인민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모든 개인이 권력을 평등하게 나누고 나라일에 참여한다. 보통선거로 뽑힌 주민 대표들이 주민의 이름으로, 주민의 직접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을 : ^{개정 교육과정 외}하나라 걸왕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것이다.

(나) 갑, 을의 정치사상적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 : 정치 사상적 입장

<보 기>

갑/을

ㄱ. A : 정치 권력은 피치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

ㄴ. B : 정책 결정에서 피치자의 복리(福利)를 추구해야 하는가? ○○≠○/× ×

ㄷ. C : 위정자는 피치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 ○

ㄹ. C : 가족 사랑의 원리[親親]를 정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앞의 예시처럼 ○, × 표시를 (나)와 <보기>에 적어주는 것이 좋다. 갑은 민주주의이며, 을은 민본주의이다.

ㄱ. A : 정치권력은 피치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1단계 : 갑 & 을 ○ or × 확인 / A는 갑과 을 모두 ○, ○ 해야 한다.

- 2단계 : 판단 내용 ○ or × 일치 확인

ㄱ 명제를 2개로 나뉜다.

ㄱ-1 민주주의(갑) → 정치권력은 피치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ㄱ-2 민본주의(을) → 정치권력은 피치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 1단계와 2단계의 ○, × 값이 일치하므로 ㄱ은 옳은 선지이다.

ㄴ. B : 정책 결정에서 피치자의 복리(福利)를 추구해야 하는가?

- 1단계 : 갑 & 을 ○ or × 확인 / B는 갑은 ○, 을은 ×

- 2단계 : 판단 내용 ○ or × 일치 확인

ㄴ 명제를 2개로 나뉜다.

ㄴ-1 민주주의(갑) → 정책 결정에서 피치자의 복리(福利)를 추구해야 하는가? (○)

ㄴ-2 민본주의(을) → 정책 결정에서 피치자의 복리(福利)를 추구해야 하는가? (○)

⇒ 1단계와 2단계의 ○, × 값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ㄴ은 틀린 선지이다.

(1단계에서 ○, × 가 나왔는데 2단계에서 ○, ○가 나왔으므로)

ㄷ. C : 위정자는 피치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 1단계 : 갑 & 을 ○ or × 확인 / C는 오로지 을만 ○면 참이다.

- 2단계 : 판단 내용 ○ or × 일치 확인 / 민본주의(을) → 위정자는 피치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

⇒ 1단계, 2단계가 일치하므로 ○

ㄹ. C : 가족 사랑의 원리[親親]를 정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 1단계 : 갑 & 을 ○ or × 확인 / C는 오로지 을만 ○면 참이다.

- 2단계 : 판단 내용 ○ or × 일치 확인 / 민본주의(을) → 가족 사랑의 원리[親親]를 정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

⇒ 1단계, 2단계가 일치하므로 ○

주의해야할 점은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며, 오로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 유형이었을 경우 ① B는 only 을○, 갑× 이어야 맞는 선지 But ② ㄷ 선지는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ㄷ는 틀린 선지가 된다.

순서도 유형에서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

순서도 유형은 오로지 '주어진 조건'만을 따져야 한다.

1단계 : ㄷ 선지는 only 을 → 2단계 : ㄷ 선지는 을 (○) 따라서 ㄷ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된다. 아래로만 내려가라. 절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범례에도 쓰여있듯 판단 방향은 일방통행이다.

일부 선생님들은 순서도에서 C가 맞으려면 갑의 입장에서도 X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 의외로 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실력 있는 선생님도 수능 문항을 분석하고 풀어본 경험이 부족하여 이런 식의 잘못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예시 목록을 제시할 테니, 이 부분이 혼란스러울 경우 직접 확인해보라. 아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하라. (교육청은 해당 연도 기준)

- ① 2014년 7월 학평 4번 5번 선지 : 갑, 을 모두 동의할 질문
 - ② 2013년 3월 학평 11번 나.(나) 선지 : 갑(첫 번째 박스) 생태 중심, 을(두 번째 박스) 생명 중심 둘 다 동의할 질문
 - ③ 2013년 3월 학평 11번 라.(다) 선지 : 첫 번째 박스 생태 중심, 두 번째 박스 생명 중심 둘 다 동의할 질문
 - ④ 2013년 7월 학평 12번 C : 갑, 을 모두 동의할 질문
 - ⑤ 2014학년도 수능 7번 5.C : 갑, 을 모두 동의할 질문
- 등등

● **유형별 문제풀이Ⅱ : 삼단 논법 유형 해결하기**

삼단 논법 유형은 두 학생의 그림이 나와서 한 학생이 ‘A는 B이므로 C이다.’라고 결론을 말하면 상대방 학생이 ‘너의 의견을 삼단논법으로 정리 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또한 문제는 다음 소전제의 반론을 추론하라고 제시된다.

1) **유형 해결 방법**

① **발문을 잘 읽어라.**

소전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 소전제의 반론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지를 확실히 확인하라.

(주로 소전제에 대한 반박이 출제된다.)

※ 성급하게 소전제에 들어갈 말을 선지로 골라서는 안 된다.

② **소전제를 복구한다.**

소전제를 복구하는 방법은 문항이 이렇게 출제되므로

- 대전제 : $B \rightarrow C$
- 소전제 : $? \rightarrow ?$
- 결론 : $A \rightarrow C$

여기에서 대전제에서는 앞부분 B를 소전제의 오른쪽에 넣어주고, 결론에서는 앞부분 A를 소전제의 왼쪽에 넣어준다.

즉, 대전제 : $B \rightarrow C$ / 소전제 : $A \rightarrow B$ / 결론 : $A \rightarrow C$ 가 되는 것이다.

삼단논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대전제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결론은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 예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인 예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소전제가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결론 (\rightarrow 소전제) \rightarrow 대전제 : $A(\rightarrow B) \rightarrow C$

•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 대전제 :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 소전제 : ? → ?

- 결론 : 따라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대전제의 앞부분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소전제의 오른쪽(결론 부분) ?에 넣고,
결론의 앞부분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을 소전제의 왼쪽(전제 부분) ?에 넣는다.

소전제 :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 [주의] 성급하게 소전제에 들어갈 말을 선지로 골라서는 안 된다.

③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찾는다.

소전제를 반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소전제를 이루고 있는 $p \rightarrow q$ 의 두 조건 사이의 관계가 잘못됨을 밝혀주는 것이다.

두 번째, 대전제가 틀렸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보통 생활과 윤리에서는 대전제가 틀리게 나오지 않고, 소전제의 앞 조건 p와 뒤 조건 q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혀줌으로써 반박을 하도록 출제가 된다.

즉, 대전제와 결론의 연결고리인 소전제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 즉 '대전제와 결론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주면 된다.

위의 경우, 대전제인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는 항상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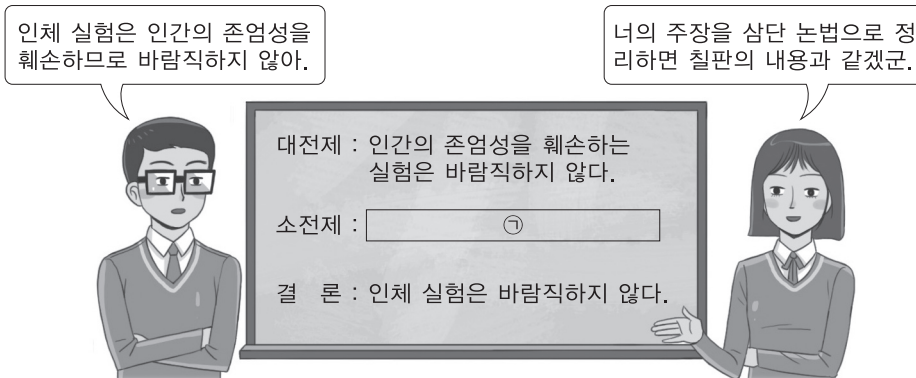
그렇다면 소전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를 반박해주면 된다. 예컨대, '인간 존재는 자의식을 지닌 인격적 존재에 국한된다.'라고 인간 존재의 외연을 한정해준다면 '인간의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므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명제는 잘못된 것이 된다.

따라서 위 소전제에 대한 적절한 반론은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다.'가 되는 것이다. 이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자.

2) 대비법

2015학년도 수능 4번



문제풀이 방법 적용

1단계 : 소전제를 복구한다.

대전제의 앞부분을 소전제의 오른쪽?(결론 부분)로 넣는다.

결론의 앞부분을 소전제의 왼쪽?(전제 부분)로 넣는다.

⇒ 인체 실험은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2단계 : 소전제를 반박한다.

인체 실험은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이 소전제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체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면 된다.

즉, 결론과 대전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다.

선지를 보면

‘2번.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인체 실험이 인격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험, 예컨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결론과 대전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준다. *수업비밀*

동양사의 흐름